

중선관위 구성 둘러싼 공방전

“유령 중선관위 인정 불가” VS “후보자 등록까지 마쳐”

2007학년도 학생회 선거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구성에서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학내 곳곳에는 성명 공방이 일어나고 있고, 학교홈페이지 '나의 주장'에서도 여론이 분분하다. 지난주 2일 열린 중선관위 구성에 대한 논의에서 문제는 시작됐다. 이날, 단과대 선관위에게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의 총대의원회 의장과 사과대 대의원장, 반대의견의 이과대, 생자대, 공과대, 야간강좌 대의원장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회의를 7시간 이상 진행했다. 총대 의장과 사과대 대의원장은 “나간다면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사항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한 대의원장의 발언을 들었지만 회의의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후 4개 단과대의 대의원장들은 이창우(전기공3) 대의원장을 중선관위장으로 한 4인의 중선관위를 구성했다. 지난 6일 학내에는 총대 의장 측에서

발간한 리플렛이 배부되고,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여기에서는 명확히 의장과 양진우 사범대 선관위장이 “모든 단과대의 의견을 모아 진행해야 할 중앙선거를 소수 몇몇 단과대위원장의 폐명으로 운영하려는 의도”라며 “회칙에는 중앙선거위원장은 총대 의장이 맡게 되어있으며, 현재 중선관위 역시 단위간의 의견차이로 구성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우 대의원장이 선관위장을 맡은 중선관위에 대해서는 ‘유령중선관위’라고 표현하며 “모든 단과대가 포함되는 민주적 중앙선거를 바란다”는 것이 리플렛과 기자회견의 내용이었다. 이날 열린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이하 총운위)에서는 이·생·공·야의 대의원장이 참석해 선거준비상황을 보고했다. 여기에서는 이창우 대의원장을 선관위장으로 한 중선관위를 인정하고 “힘을 실어 주자”는 결의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이에 박소혜(정보관리4) 경영대 학생회장은 학교홈페이지 나의주장을 통해 △전반적 회의 과정상의 문제 △총운위가 중선관위에 힘을 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중선관위는 9일 배부한 리플렛을 통해 총대의원회 의장에게 “함께 중앙선거를 진행하자”라는 의견과, “중선관위장 역시 총대의원회 의장이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선관위는 이·생·공·야의 대의원장과 3일부터 실시된 모집공고를 통한 20명의 위촉위원 총 24명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 6일 총운위를 통해 대의원장이 없는 단과대 회장에게 중선관위원 위촉권을 주어서 이후 확대될 예정이다. 중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1일(토) 5시 후보자 등록이 △총학생회 회장=정형주(통계4), 부회장=최운철(경영4) △총여학생회=전승호(경영3) △총대의원회=정평주(야간공통3) △졸업준비위원회=김득주(통계3)로 마감됐다. 이에 명확히 총대 의장은 “지금의 중선관위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당선자는 ‘부당 선출로 학생회장을 자임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일에서 21일 쯤 대의원 총회를 소집해 선거진행에 대한 대의원들의 생각을 듣고 모든 결정을 맡길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6일 총운위 이후로 명확히 의장과 모든 대의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의 의견을 아우를 수 있는 논의의 자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파행으로 치달거나, 돌로 갈라지는 선거는 학내의 혼란만 가져올 뿐, 각 구성원 사이의 논의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강좌별 수석장학 신설 저소득층 대상 장학 개설 예정

강좌별 수석장학이 신설돼 2007년도 1학기부터 시행된다. 강좌별 수석장학은 제38대 총학생회(회장=정성진·경영4)의 공약이 장학과로 수렴되어 신설됐다. 이는 재학생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심화학습을 유도하며 장학금 수혜대상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최우수 학생의 선정이 모호한 PASS과목, 교육실습, 현장실습을 제외한 약 2천여 개의 강좌별로 수석을 한 학생 한명을 선발하여 한 강좌당 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최우수 학생의 선발은 강좌별 교수 또는 강사의 재량으로 선정하며 성적 입력 시 대상자를 입력처리한다. 최우수 학생에게는 타 장학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장학금이 지급되며 1인당 3장까지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은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갇면 처리하여 지급하며,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 계좌로 별도 지급된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개설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또는 소년소녀 가장 등으로 예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적 상황이 곤란한 학생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이에 강화정(불교1)학생은 “새로운 장학들이 생겨나는 것은 반갑지만 저소득층 장학의 경우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면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기에 수혜기준의 선정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15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2007학년도 1학기 우수장학 신청 업무가 장학과에서 각 대학 행정지원실로 옮겨졌다. 각 행정지원실에서 신청 받아 장학과에서 취합돼 학생들에게 지급됐던 이전 방식과는 달리 이번 업무 이전으로 장학의 지급과 환급이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장학과 김미경 직원은 “신청은 전과 같이 각 행정지원실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불편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이어령 박사 15일 강연

정각원(원장=박종호)은 오는 15일 오후 3시 분관 중앙당에서 건학 100주년 기념 대강연회를 주최한다. 강연자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으로 '한국 인문학의 뿌리는 불교'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강연은 불교TV에서 '한국의 정신 근간에 불교가 있으므로 한국의 인문학을 불교에서 찾아보자'라는 취지로 우리학교에 제안한 공동으로 주관한다.

축구부 오늘부터 전국대회 출전

우리학교 축구부(감독=김용해)는 오늘부터 2006년 11월 13일부터 제61회 전국대학축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경기는 오는 24일까지 12일간 열린다. 첫 경기는 오늘 11시 성화대와 고양시 덕양구 덕양고등학교에서 열린다.



“사랑의 손도장, 꾸욱!” ... 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11일 학림관 3층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손 모아 사랑 모아 가족 핸드프린팅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온 가족이 함께 핸드프린팅을 하면서 가족 간의 친밀감이 높아지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승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BBS 불교방송과 교류협약

우리학교와 BBS 불교방송과의 교류협력사업 협정체결이 정책회의실에서 오는 16일 진행된다. 이번 협정은 올해 초 이루어진 10개 대학과의 교류협정 연장으로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 외의 여러 프로그램을 체험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16일에는 포괄적인 교류협약 및 BBS 불교방송의 인직인 2명이 우리학교에서 받는 위탁교육과, 우리학교 학생 5명에 대한 BBS 불교방송 인턴십을 운영하는 세부 협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불교문화 사업이나 강좌 개설, 특강추진 등의 사업이 꾸준히 추진 될 예정이다.

취업캠프 15일 접수

취업지원센터는 2006 동계 재학생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HRDP) 취업 캠프 접수를 받는다. 모집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열흘간이며, 모집대상은 재학생 전학년(인원초과 시 3, 4학년 우선배정)이다. 교육일정은 3기는 내년 1월 9일부터, 4기는 내년 1월 16일부터 3박 4일간의 합숙교육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직업 설정을 위한 인·적성 검사, 국문·영문 이력서 작성법, 면접 시뮬레이션 등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금주의 동국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예비검사 이명철 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겐 힘든 순간도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법관이 되고 싶었던 어릴 적의 막연한 꿈을 이제 막 이루어 가려하는 이명철(법학4) 군을 만났다. 지난달 12일 제 48회 사법시험 2차에 합격한 이 군은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은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사법시험을 준비하려 할 때는 자신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법학과 내 사법 공부에 뜻있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인 ‘법준대’에 속하게 되고 선배들의 조언을 들으며 자신감이 생겼다. 2차에 합격했다는 기쁨보다 탈락하지 않아 안심이 되었다는 그는 혼자 시험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외로움을 참는 것”을 꼽았다. 그럴 때마다 가족들에게 전화해 안정감을 찾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다고 한다. 또 시험준비로 힘들어 할 때마다 찾아와 준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많은 힘이 되었고 합격 후에도 직접 찾아와 축하의 말을 건네준 이들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명철 군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우리학교에도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체계가 마련돼 학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절실히 느꼈다. 타 학교에 비해 아직은 합격생이 적은 편이지만 계산고사학사의 시스템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후배들은 더욱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 앞으로 합격생이 더욱 늘어 날 것이라고. 또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면서 공부를 할 수는 없다”며 “희생할 부분은 희생해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 꼭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시험준비에 ‘울인’ 해보라”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정의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거창한 생각은 없다”며 “늘 꿈꾸어 왔고 꼭 하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해 보람을 얻고,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길이며 나라를 위한 길 이겠죠”라며 굳은 의지를 보이는 이 군. 평소 의무내강한 김희욱 헌법재판관을 존경해 왔다는 이 군이 따뜻한과 정직함을 겸비한 ‘이 검사’가 되는 날을 기대해본다. 최미혜 기자 imisonaral@dongguk.edu

English Clinic 개소

국제교육원(원장=김일중·국제통상학)에서 설립한 English Clinic 개소식이 지난 11월 6일 오후 2시 혜화관 1층 로비에서 열렸다. English Clinic은 국제교육원 소속의 원 어떤 강사에게 자신이 원하는 상담분야

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도움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상담은 혜화관 1층 English Clinic 센터에서 1회에 30분으로 1주일에 한 번, 한 학기에 최대 10번을 받을 수 있고 상담분야는 작문과 회화이다. 접수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국제교육원(ie@dongguk.edu)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서 하면 된다.

사학과 60주년 학술대회

건학 100주년, 사학과 6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지난 10일 문화관 제 3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정병준 교수의 사회로 김창수, 황인규, 임상선 교수와 임상선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원, 황정식 용인대 교수가 발표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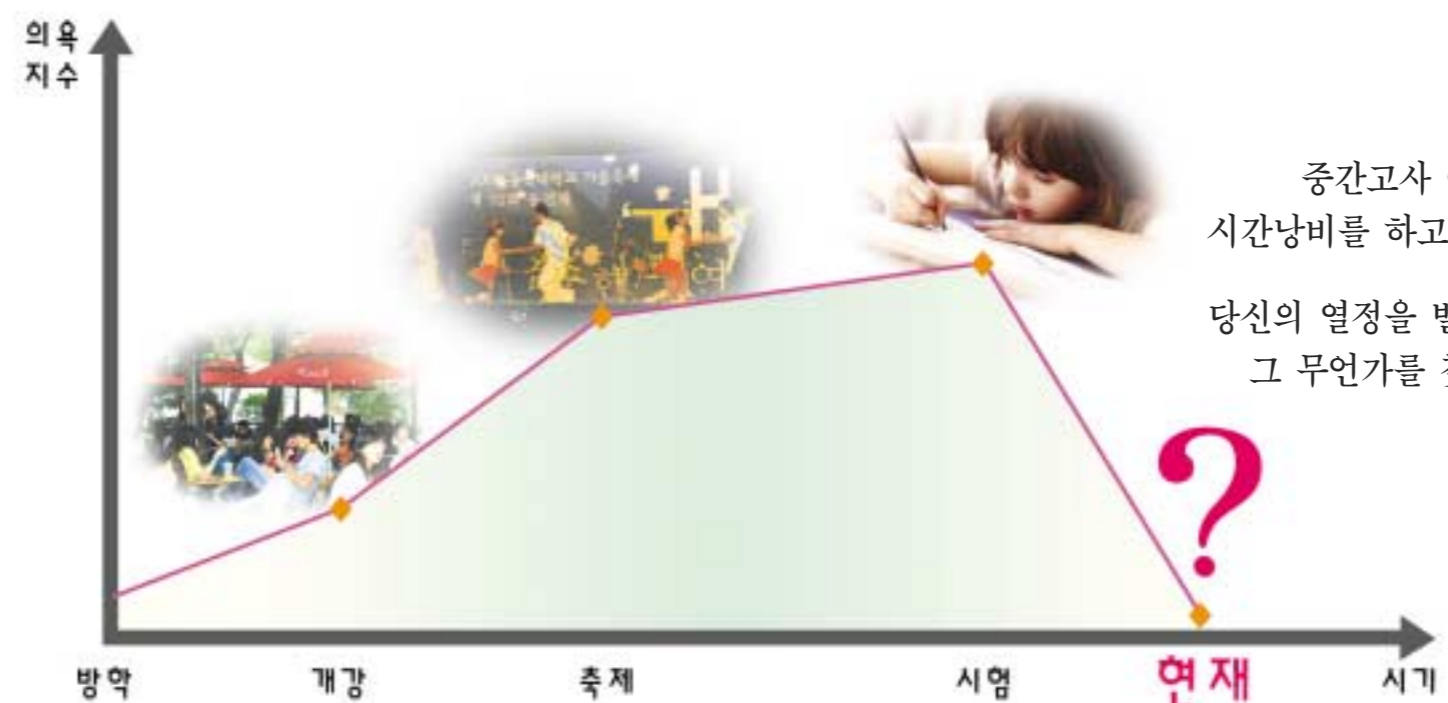
이번 학술대회 이후 저녁 8시 부터는 사학인의 밤이 진행되었다.

알림

총학생회 일정 관계로 다음 주 신문은 휴간합니다. 제1436호는 11월 27일자로 발행되오니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발전기금 060-700-0119

당신의 의욕지수는 얼마입니까?



중간고사 이후 무리하게 시간낭비를 하고 있지 않나요? 당신의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을 때입니다.

총대의원회 붕괴 위기인가?

‘중립’ 역할 다하도록 학생들 관심·책임의식 필요

우리학교 총대의원회의 존재를 알고 있는 학생들은 얼마나 될까.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총대의원회는 총학생회의 최고 입법·감사기구이다. 우리학교의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의원은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반대파, 학년과대표, 전공대표이다. 총학생회 운영위원, 단과대 학생회 운영위원 및 과 부학생회장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총대의원회에는 대의원총회, 정·부의장, 중앙위원회, 단과대학 대의원회, 집행국이 있다. 이중 대의원총회의 업무 및 권한은 △최적 부분개정의 발의 및 의결권 △운영 위원회에서 검토·조정·제출된

에·결산 및 사업계획의 동의권 △ 학생회비의 분배 및 인출에 대한 승인권 △총학생회 정·부회장에 대한 탄핵소추권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 △총학생회 각 집행부서장의 해임 결의권 △운영위원 및 집행부서장, 특별기구장에 대한 출석 요구권 등이다.

또한 중앙위원회는 총대의원회 정·부의장과 각 단과대 대의원회 의장으로 구성돼 있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감사를 시행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업무를 전담한다. 또한 대의원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특수한 점은 이러한 선거, 감사를 따로 담당하는 자치단체인 ‘총

대의원회’가 설치된 학교는 우리 학교와 인세대 등 그리 많지 않다 는 점이다. 이는 총학생회가 감사 특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각 업무를 진행하는 다른 대학들에 비해,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학생 대표자회의 한번 성사시키기 힘든 요즘, 학생들의 자치단체활동 참여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의원회는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지난 2003년 이후 총대의원회 의장이 부재했고 이후 비대위 체제로 운영돼 왔다. 총대 의원회가 주최하는 대중사업도 없 어졌고, 자신이 대의원이라는 사실

을 모르는 과대표들도 상당수다. 총대의원회의 나아갈 길에 대해 제38대 총대의원회 명장회(정보통신4) 의장은 “총대의원회가 계속 건설되고, 학생자치기구들의 감사·예산 뿐만 아니라 공약과 사업 에도 관심을 가져 적절히 비판, 견 제할 수 있는 기구가 돼야 할 것”이 라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대의원인, 학년과대 표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학 교의 독특한 체제인 ‘총대의원회’ 가 학생들의 관심 속에 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약용식물 유전자원 관리기관 대표책임자 이명훈 교수

“수도권 최고 수준의 식물농장 조성할 것”



우리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학장=이명훈·식물생명공학)이 지난달 우리나라 농업 기술연구를 총괄하는 농촌진흥청이 지정하는 ‘약용식물 유전자원 관리기관’에 선정되었다.

식물유전자원을 이용한 산업 발전과 웰빙문화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약용식물 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서 우리학교 실험농장의 역할이 기대된다. 약용식물 유전자원 관리기관 대표책임자인 이명훈 교수를 만나보았다.

- ‘약용식물 유전자원 관리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 최근 세계적으로 한 나라 육종(育種)의 성패를 가름하는 종자은행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가에서 모든 분야를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 농촌진흥청에서 학술 연구 및 산업화 가치가 높은 식물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관을 선정할 것이다. 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선정되면 향후 최소 5년간 정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고, 식물 유전자원의 보존 및 재배 업무를 맡게 된다.

- 우리학교 약용식물 유전자원의 현황은.
= 2002년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수집한 50종의 약용식물

을 시작으로 현재 우리학교는 130과 527종 1천 여점의 약용식물 및 허브식물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약용식물은 생약의 소재나 먹거리뿐만 아니라 식물을 키우면서 정서적 안정을 통해 병을 치료하는 원예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현재 약용식물 농장의 규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를 수도권 최고 수준으로 조성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개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일산 식물농장 내 수상식물원을 만들어왔다. 또한 내년에는 원예치료센터를 개원할 예정이다. 한편 약용식물 농장에 조직배양실을 만들어 산삼과 같은 희귀 약용식물의 대량 재배에도 힘쓸 것이다.

<담>
ssundam@dongguk.edu

회전무대

회실찾아 삼만리

○...“오늘은 총학생실에서, 내일은 졸준위실에서...”

내용인 즉, 생협학생위원회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회의할 공간도 마땅히 없고, 비품 보관할 장소도 없는 실정이라고.

생협학생위원회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면 공간 마련부터 해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하지는 않을까. 이에 한 동국인 왈, “생협학생위원회는 비밀안보기구(!)”

까막눈

○...“젓가락질을 잘 못해도 밥은 먹을 수 있지만, 젓가락과 숟가락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고.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학생식당에서 식기를 반납할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표시된 대로 분류하여 놓지 않고 편의에 따라 뒤섞어 놓아 설거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두 번 일하게 한다고.

이에 본 회전 무대자 왈, “젓가락질은 못하더라도 글자는 읽을 수 있길 바래(!)”

새치기 한 자리

○...아침 일찍 별관 열람실을 찾은 한 학생, 좋은 자리에 정체를 명의 책이 올려져 있었다는데. 학생들이 별관 열람실에 자신의 책을 그대로 두고나가 다음날 열람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책을 가져가려는 공고도 있으나 마나였다는데.

가져가지 않는 책에 대해 학교측에서 책을 치워 보관한다면 학생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고, 폐기를 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므로 자기 물건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이에 본 회전 무대자 왈, “만해관 열람실 자리 지정은 학생증으로, 별관 열람실은 책으로(!)”

오석운 전임연구원

문화관광부 교양도서 선정

2006년 문화관광부 교양도서 문학분부에 우리학교 오석운 일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이 번역·출간한 ‘일본 하이쿠 선집’이 선정되었다.

하이쿠란 17자로 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서정시로 ‘일본 하이쿠 선집’은 일본 근세를 대표하는 하이쿠 시인 3명과 근대를 대표하는 2인의 하이쿠를 모아 엮은 책이다. 이를 오석운 전임연구원이 각 시를 번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넣었으며 5명의 하이쿠 시인의 가상 대담을 넣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선정으로 이 도서는 전국 공공도서관, 교정시설 및 청소년 센터 등에 보급될 예정이다.



“시작의 노래를 부르며” ...

지난 11일 중강당에서 ‘공과대학 총동문회 창립총회 및 기념음악회’가 열렸다. ‘양모암로’를 초청한 이번 음악회는 공과대를 비롯한 우리학교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주현 기자
thispaper@dongguk.edu

대각전 만불봉안법회

오는 16일 열려

대각전 만불봉안법회가 오는 16일 10시 대각전에서 열린다. 이번 법회는 동국대학병원 + 한방병원과 우리 학교에 기부금을 전달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한 행사로, 10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을 새긴 불상을 만들어 봉안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기부자들에게 재기부의 동기도 부여한다.

동약로

무언의 합의

“오늘 시험치고 다음 주에는 휴강 하겠습니까?”

“보강? 휴강했으면 그만이지 귀찮게 무슨 보강을 받아?”

축제기간, 시험기간 강의실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대화다. 다른 기간에 비해 이 기간에는 휴강을 하는 일이 잦다. 물론 교수가 학술 세미나에 참가하거나, 외부업무 등에 피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휴강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교수는 휴강 사유를 학교에 보고하고, 그에 따른 보강 일정을 지정해 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휴강과 보강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다음 주에는 휴강을 하겠습니까?”는 말로 모든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축제기간이나 시험기간은 다른 지난 때에 비해 휴강이 잦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알고 있고, 가시적으로도 분명한 현상이다. 그러나 학사지원실의 교수들의 보고에 따른 통계 자료를 보면 시험기간이

라고 해서 특별히 휴강과 보강이 많이 이루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들이 원칙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휴강과 보강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학생들에게도 있다. 축제기간, 시험기간에는 종종 일방적으로 학생들이 휴강을 요구한다. 학생들은 보강을 원하지 않는다. 시험 기간 중 3번 휴강이 된 어연중(경영대1) 군은 “학생들이 휴강만 원하고, 다른 일정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따로 보강을 하는 것을 싫어 한다”고 말했다.

새 학년이 시작될 때 마다 등록금 문제로 학생들과 학교가 씨름하는 일을 많이 볼 수 있다. 수업의 1분 1초가 학생들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수업은 학생들이 요구해야 하며 지켜나가야 할 권리인데 스스로 이 권리를 포기하는 학생들의 의식은 문제라고 본다.

보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의 시간을 맞추기 어렵고, 출석률은 본 수업보다 저조하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휴강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휴강을 해야 할 경우, 교수의 입장과 학생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교수와 학생 모두 가장 중요한 수업에 대한 본연의 의무와 권리를 잊지 않아야겠다.

최미혜 기자
Imisonaral@dongguk.edu

관성의 법칙

○...우리 학교에는 청개구리들이 모여 논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학림관 각 층에 설치된 휴게실이 휴연구역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과거에는 휴연실로 사용된 장소지만 지금은 금연구역으로 확정된 만큼 학생들이 이를 지켜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비휴연자 왈 “물도 마시고 쉬어 가려면 숨차는 것은 기본오건(!)”

2006년 하반기 졸업인증 영어 PASS제 대체강좌 공고

개설 취지 및 목적	1. 졸업인증 미 취득자에 대해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학사학위 취득에 준하는 외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2. 강좌는 방학 중에 시행되며, 단기집중 Camp 형식으로 구성된다. 3. 강좌는 졸업인증 Pass제의 취지에 합당하게 구성되며, 출결과 성적이 엄격히 관리된다.
강좌 명	2006년 하반기 졸업 Pass 제 대체강좌
수업기간	2006년 12월 22일(금) ~ 12월 30일(토) *12월 16일 사전 Level Test 미 참석 시 자동 누락 (9:00시 시험시작)
강좌 구성	강의시간 오전 9:00 ~ 12:20 + 오후 1:00 ~ 4:20 (매일 6~7 시간) / 총 6일 (Level Test / OT 뉴욕동 설명회 및 모의 TOEIC Test 시간 포함) 강의내용 TOEIC L/C+ R/C / 청취 강화반 / 리딩 VOCAB반 / 영어면접 준비반 강 의 실 추 후 공 지
수강 자격 및 조건	1. 수료자 및 2007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영어 Pass 제 미 통과자. 2. 영어 공인 인증시험 (TOEIC, TOEFL, TEPS) 및 국제교육원 Pass제 TOEIC시험 2회 이상 응시 경험이 있는 자. * 위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는 취소될 수 있음.
수강 인원 및 선발 기준	수강 인원 신학수 150 명 / Level 별 반 편성 총점 산출 출석률 60% + 성적 40% PASS 기준 * 총점 70 점 이상으로 P/F결정. * 2회 이상 결석 혹은 시험 미 응시 시는 점수와 관계 없이 재적처리. * Pass 의 경우 영어 졸업 인증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처리함.
기간 및 장소	11월 27일(월) ~ 12월 8일 (금) 혜화관 1층 국제교육원 접수 DESK
준비물	신청서, 사진 2장(1장은 원서부착), 신분증, 시험용시중빙서류 (성적표 등-국제교육원 패스시범은 내부 확인 가능)
신청 방법	혜화관 1층 국제교육원 접수 DESK에서 직접 신청, 온라인 입금 - 신한은행 / 계좌번호 140-006-754830 예금주: 동국대학교 (국제교육원) (입금 시 학과 / 이름 기재)
수강 신청	280,000원 (교재 4권 , 동영상 강의비 포함) 1) 실제 강의비 430,000원 중 Pass 강좌 신청조건 충족한 학생에 한해 학교에서 150,000원 지원 2) 출석 100% 참여시 50,000원 환급 (국제교육원 지원) *실제학생부담금 : 230,000원
문 의	02) 2260-3690 / 019-311-8517 (아학 담당자)

졸업요건 영어PASS제 토익시험(11월25일) 시행

영어PASS제는 졸업요건으로, 해당 대학/학과는 지정된 소정의 점수를 졸업 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정규시험(TOEIC, TOEFL, TEPS)이외의 패스 취득기회 확대를 위해서 PASS제 모의 토익을 시행합니다.

1. 접수 : 11. 13(월) ~ 11. 15(수) 24:00까지 (인터넷접수)
2. 입금 : 11. 13(월) ~ 11. 15(수) 24:00까지
3. 접수증 출력기간 : 11. 22(수) ~ 11. 25(토)
4. 취소 및 응시로 환불기간 : 11. 16(목) ~ 11.17(금)
5. 방법: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재학생서비스-외국어PASS제-영어패스시험 신청-응시료 입금-접수증 출력
6. 시험 : 2006. 11. 25(토) 10:00~12:30 혜화관 2층 강의실
7. 대상 : 졸업대상자 중 영어PASS제 미취득자
8. 응시료 : 5,000원
9. 입금마감일 : 2006. 11. 15 (수) 24:00까지 (미입금시 취소)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06-754830 (예금주: 동국대학교 국제교육원)
10. 접수 주의사항 (아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취소 가능)
가. 학적부에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모든 학사서비스가 제한됩니다.
한정제에 반드시 사진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마감일까지 반드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시 본인인름, 학번 또는 학과 표기: 예, 홍길동2005123)
다. 기 패스자 및 미 입금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11. 시험일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접수증, 연필(샤프)
12. 문의 : 국제교육원 (혜화관 1층, 2260-3471, 3590)
13. 시험 주의사항 :
가. 9시 45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10:00 이후는 절대 입실 불가.
나. 신분증, 접수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입실할 수 없습니다.
다.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시험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라. 2학기 마지막 PASS제 모의토익입니다. 12월에 모의토익 시험 없음.

국제교육원

2007-1 학기 우수장학금 신청 안내

2007학년도 1학기 우수장학금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장 학 명 (장학금액): 우수장학 (등록금 30%)
가. 단과대수석장학 및 전공(학과)수석장학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성적순에 따라 선발함.
나. 신규 교외장학생도 우수장학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에서 우선 선발함.
다. 보훈자녀 등 계속장학생은 신청할 필요 없음.
2.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재학생으로 우수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
가. 2006-2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취득학점 미달 및 평균평점이 3.0미만인 경우 추후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나. 교내·외의 타 장학금을 받는 자 제외
다. 2007-1 학기 복학예정자 제외
3. 신청기간: 2006. 11. 20(월) ~ 12. 1(금)
4. 신청장소: 해당 학업지도교수
5. 신청방법: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제출
6. 평가기준: 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대학 행정지원실에 문의바람
7. 제출서류
가.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
또는 본교 홈페이지(학사센터→학사지원실→교내장학금신청서)에서 다운로드해서 사용
나. 사회봉사인증서
1) 교외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봉사기관에서 작성한 봉사활동 증명서류를 학생복지실 사회봉사 담당자에게 제출함.
2) 동국참사랑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자동 점수 처리됨.
3) 사회봉사금액은 졸업 시 까지 계속 인정됨.
다. 지방세 세부별(미)과세증명서 : 부모 기간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제산세 7월분과 9월분을 합산하여 기록 함).
라. 기타 가정형편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마. 학업성적은 자동적으로 점수 처리됨
※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우수장학금을 수혜 할 수 없음.

학 생 처

20대 미혼모의 실태와 해결 방안

“올바른 성의식 확립이 미혼모 문제 막아”

지난달 30일 '한겨레신문'은 1면에 '어린 엄마' (리틀맘)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낙태나 입양 대신 '엄마의 길'을 택한 청소년들의 '비에'와 사회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기사다. 누가 뭐라 하든 자신의 아이를 지켜낸 생명지킴이의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해에만 약 5천명의 미혼모가 생긴다. 90년 후반 감당하지 못 할만큼의 10대미혼모가 급증하며 미혼모가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부각되었고 최근에는 20대의 미혼모의 증가추세가 새로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혼모 시설 입소자 절반이 20대 이상이다.

20대 미혼모에 대한 처우

미혼모들이 윤락가 등지에 사는 특별한 여성이라는 생각은 진부하다. 우리가 만나는 미혼모 중에는 대학생의 수도 적지 않은데 미혼모 시설로 찾아오는 20대에는 이런 사연들이 있다. 대학 신입생인 유미(가명)는 과 동기인 진형(가명)과 교제 중에 아이가 생겼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진형은 군복무 중으로 진형에게도 뽀족한 수가 없으리라는 생각에 혼자서 고민하다가 미혼모 센터를 찾았다. 부모님께 실망을 끼치고 싶지 않아 혼자서 처리하고 싶었으나 출생한 아이의 장래를 혼자 결정할 수는 없어 양가에 알렸다. 현실적인 판단으로 아이는 입양 보냈으나 2년이 지난 지금도 두 사람은 교제중이다. 21살 정아는 20살 동수와 채팅으로 만났고 22살 민아는 나이트에서 미혼모로 알고 만난



논단
이 선 희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
미혼모 시설 '우리집' 원장

용수와 1년을 동거하며 아이를 낳지만 이제야 용수가 6살 딸이 있는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 1년간 용수는 일을 하지 않았고 정아는 부모가 보내주는 학원비와 방세로 생활하다가 빚마저 진 상태이다. 대부분의 미혼모는 미혼부 없이 혼자서 해결점을 찾으며 오히려 미혼부를 보호하려는 의도마저 가지는 심리가 있다.

이러한 미혼모가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무척 한정적이다.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면 의료서비스와 숙식 제공, 기타 교양·문화체험활동 등과 학력 이수 및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혼모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는 전무하다. 한해 5천명의 미혼모에 대한 처우치고는 아박하다. 미혼모가 사회적 서비스를 받으려면 자신의 생활터전을 떠나 집단시설로 거처를 옮겨야만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미혼모는 사후에 달린 한국의 미혼모는 단죄의 차원에서 펴가방이며 미성숙한 결정에 따른 생명을 태어나지 않아도 좋다는 윤리적 판단과 함

께 생명경시까지 질게 깔려있다. 임신 7개월 이후의 태아가 낙태되고 있는 사실과 낙태의 유혹을 이기고 출산을 선택한 미혼모를 나무라기까지 하는 것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다.

미혼모 발생의 원인

'한국은 청소년기가 30살까지'라고 한 모 정신과 교수의 말이 실감난다.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시기가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그리고 군복무까지 밀려나고 30이 된다는 것이다. 부모의 보호아래 최소한의 자유만을 가지고 자라는 청소년, 대학결정마저도 부모의 선택에 의존된 현실, 처음 살아보는 혼자 생활, 갑작스럽게 부여된 자유... 서구사회가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독립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더불어 부모와 코드가 맞지 않아 빚어지는 갈등, 부모의 이혼과 재혼 사이에서 멍든 자녀들, 자녀보다 자신이 먼저인 미숙한 부모, 너무도 무능한 부모. 그 사이에서 안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이 많다. 모두 어른들의 책

임이나 그 피해는 청소년들이 떠안고 자신을 의지할 상대를 찾아 이성에게로 포대 친구들에게로 몰입해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서로 좋은 마음에 상관계를 가지나 이후 발생할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나는 원치 않았고 상대 때문이라는 어린아이같은 책임회피와 나름대로 조심한 미숙한 책임, 이것이 임신의 이유들이다.

성에 대한 인식 바로해

우리는 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독학을 하고 있다. 생리적인 성이냐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실제적인 성의 가치와 의미, 남성과 여성의 차이, 상관계방법과 성윤리, 책임 등에 대해 편안하게 배울 기회는 많지 않다. 가르치지 않고 똑바로 하라고 하는 것, 모순된 일 아니겠는가? 먼저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하겠고 상대를 사랑하는 방법이 섹스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결과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발생한 미혼모와 아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는 중요하다. 두 생명에 관한 일이며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원치 않는 생명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임은 더욱 필요하다. 실제적인 성교육, 미혼부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법적인 조치, 자녀들이 책임감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은 세우는 일, 부모교육, 청소년 상담가능 확대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얼마든지 있다.

파워엘리트 프로그램 정착 위한 노력 요구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홍보 필요

지난달 26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파워엘리트장학의 신청접수가 공지됐다. 이로써 올해 초 파워엘리트장학에 대한 발표 이후, 구체적인 학생 선발 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세부사항이 결정되어 발표되었지만, 접수 시기가 지원학과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 대학원 입학허가는 대부분 1, 2월 중에 발표되고 늦은 경우에는 3월에 발표되기도 한다. 때문에 파워엘리트 장학 프로그램 접수가 시작되는 다음달 11일과 면접일인 27일까지도 입학 허가를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학교 측은 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 입학 허가서를 제

외한 성적증명서, CBT, GRE 성적 등의 서류제출만으로도 파워엘리트 장학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파워엘리트 장학위원회의 위원인 진로교육상담팀 손재영 팀장은 "입학 허가서가 없어도 제출하는 성적들과 함께 면접부분에서 관련학과 교수님과의 전공 구술시험을 보기 때문에 대학원 합격에 확신이 서는 학생들은 파워엘리트 프로그램에 선발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학 허가서를 받은 학생의 경우는 매우 유리하게 허가하리라고 말할 수 있다"며 입학 허가서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또한 지원대상학교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 대학평가를 진행하는 U.S. News & World

Report 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지난 5월의 규정에서 그와 함께 학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식기관의 선정순위를 참고 하는 것으로 완화되어 지원의 폭이 넓어졌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생학문의 경우가 개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외되는 학문분야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진로교육상담팀 임종빈 직원은 "U.S. News & World Report에 학문분야가 없는 학생은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에 대한 순위 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관련 교수님과의 논의 후에 선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워엘리트 장학 프로그램 홍보에도 보다 힘을 쓸 필요가 있다. 실제로 유학을 준비 중인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면 많은

학부 학생들과 수험생들은 파워엘리트 장학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학교 홈페이지의 게시나 단순 자료배포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교수 추천 등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속적인이고 다각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파워엘리트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최상위권 학교에 지원하는 우리학교 학생들은 실제로 미국 대학원에서 부담하는 장학금이 적어 입학 허가가 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우수한 학위를 가진 인재를 배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신입생을 모집할 때에도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앞으로 파워엘리트 장학 프로그램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양질의 지원자들을 키워내 장학금을 이용하는 학생과 장학금을 제공하는 학교가 모두 함께 이익을 얻는 사업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문서영 기자
syooob@dongguk.edu

사설

총학 선거 앞둔 공방전 탈피해야

11월 중순이 되면서 각 대학들은 새로운 총학선거와 관련한 선거일정이 확정돼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다. 각 단과대 역시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다. 우리학교 총학생회 선거 진행상황은 어떤가. 열띤 경쟁보다 선거일정과 학생회 감사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제39대 총학생회 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캠퍼스 곳곳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구성에 대한 각 단과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차이로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는 대자보와 플래카드만이 지금이 총학생회 선거 시즌임을 나타내주고 있을 뿐이다. 총학생회 선거일시와 이변년도 학생회 감사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돼 제39대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건설에도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과대·생자대·공과대 선거관리위원회측은 3개의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중선위를 구성해 투표일정과 후보자 접수를 공지한 상태이고, 그 외의 불교대, 문과대, 경영대, 사과대, 정산대 등 8개의 단과대는 이에 반대하면서 학생회 건설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중선위의 구성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중선위를 구성해야 할 대표자들은 지금 상황을 인지하고 반성해야 한다. 최근 각 단과대 대표들의 대표성과 책임의식이 문제되고 있듯이 선거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의식이 부족한 것이 이번 사태를 발생시킨 요인 중 하나이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지켜야 할 회칙은 도외시 되고, 소모적 대립만 지속되고 있다. 사실 선거 전 공방전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작년 선거시즌에 있었던 학생회 선거 전에도 총학생회 내부에서 단과대 학생회별로 입장 차이가 생기면서 대립구조를 띠기도 했다. 추이를 지켜봤을 때 특정 단과대끼리 편 가르치기식 대립구조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선위를 구성해야 할 의무를 지닌 총대위원회 의원들과 위원장은 뽀뽀히 흠어져 각자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이 사태를 지켜보는 학생들은 언제, 어떻게 투표가 이뤄질지 도통 감을 잡을 수 없다. 이 상황에서 학생들의 투표를 바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총학생회에 대한 투표참여도와 함께 총학생회 활동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다.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참여를 이끄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회를 이끄는 주체들이 학생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의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학생회의 위기는 없어지지 않는다. 현재 학생회와 학생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들이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길 바란다. 그리고 묻고 싶다. 제39대 학생회 건설은 언제 되는 겁니까.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편집인 겸 주간 윤재용 |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편집장 김지혜 | 구독문의 :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2006 동계 재학생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HRDP) 취업캠프] 참가자 모집 안내

학생처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재학생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HRDP) 취업캠프'를 함께방학(1.27)에 이어 동계 HRDP 취업캠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하니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캠프명** : 재학생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HRDP) 취업캠프
- 목적**
 -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자신감 및 리더십 함양 교육
 - 입사서류작성, 모의면접 등 체험을 통한 재학생 취업 성공 및 기본 역량 강화
 - 교육 참가자의 네트워크 형성 및 상호 협력관계 구축의 장 마련
- 모집대상** : 재학생 전학년(인원초과시 3.4학년 우선배정)
 - ※ 선발인원(3.4기 각 50명씩)의 2배수까지 신청자 접수
- 모집기간** : 동계방학 3.4기 대상자 : 2006. 11.15(수) ~ 11.24(금)
- 신청장소** : 취업지원센터(본관 2층)
-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별첨 소정양식)
 - ※ 신청(접수)시 '취업캠프 참가 자기소개서'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선발방법** : 내부기준(자기소개서, 접수순서, 학년 등)에 의거하여 선발예정
- 선발자 명단 공고** : 2006. 12. 4(월)이전에 홈페이지 게재
- 캠프(교육) 내용**
 - 가. 교육형태 : 합숙교육(9박4일)
 - 나. 교육일정 및 선발인원

구분	회수	일 자		인원	비고
		3기	2007. 1. 9(화) - 1.12(금)		
동계방학	4기	2007. 1.16(화) - 1.19(금)	50명	100명까지 접수	
	계		100명		
- 다. 교육장소 : 보훈교육연구원(경기도 수원소재) 라. 교육주관 : 잡코리아
- 마. 지원 주요 프로그램

구분	교육명	주요 교육내용
1일차	역할극화	- 성공적인 자기경영, 커뮤니케이션 기법 - 직업 설정을 위한 인생.직성검사 - 창의력개발, 기획력 향상
2일차	자기관리 및 리더십 강화	- 비전 설정 및 목표수립 - 셀프 리더십, 팀 리더십 - 시간관리 기법
3일차	취업준비 교육	- 국민 이력서 작성 및 컨설팅 - 성공면접 이미지 메이킹 - 영문 이력서 작성법, 영어면접기법 - 성공면접 이미지 메이킹 - 면접 Role Play(1:1, 디.1, 면접 시뮬레이션)
4일차	실전 취업스킬	- 면접 Role Play(토론면접 시뮬레이션) - 면접 프리젠테이션 위한 성공전략 - 기업 인사담당자 실전 모의면접

10. 기타사항 : 교육비는 전액무료이며, 참가자 전원에게 유니폼과 기념품 제공 및 수료증 발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팀으로 문의바랍니다(문의전화 : 2260-3055,3059)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동국 100주년 Power Elite 장학 신청 안내

- 장학내용**
 - 장학금 : \$50,000/년 이내 지급함 (최대 3년간).
 - 지원대상 학교
 - ▶ 미국의 분야별 대학원 평가 순위(완공학과 순위) 상위 5위 이내의 대학 (석)박사 과정.
 - 선발인원 : 10명.
- 지원 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본교 학부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07. 2월).
 - ▶ 지원 대상학교의 2007년 9월 입학 대상(예정)자.
- 선발기준** : 성적 + 면접
- 제출 서류**
 - 동국 100주년 Power Elite 장학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지원 대상학교의 입학허가(예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본교(학부)성적증명서 1부.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은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 CBT(Computer Based TOEFL), GRE 성적표 각 1부.
 - 자기소개서, 학업이수계획서(소정양식),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 2인 이상 추천서 (소정양식).
- 제한사항** :
 - 박사학위 취득 후 본교 교원 채용시 우대함.
 - 매년/학기별 학업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양식 및 제출서류는 추후 공지).
 - 총 유학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박사학위 미 취득시 중도 포기자로 간주하여 기 지급된 장학금 환수함.
 - 석사 진학 예정자는 박사학위를 취득함을 전제로 지원함.
 - 유학 중 학교변경 및 유학관련 기타사항은 사인별로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선발이 확정된 자는 반드시 당해연도 입학시기에 등록을 필하여야 함.
- 제출 및 문의처** :
 -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 (본관 2층). (2260-3927, job@dongguk.edu).
 - ※ 기타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바람.

학 생 처

2006년도 하반기 예비군 보충훈련(최종) 공고

- 교육일정 / 장소**
 - 가. 훈련일시 : 11월20일 - 11월24일 (05일간)
 - 나. 훈련대상 : 금년도 훈련 미발자 전원
 - ※ 훈련대상자는 11월15일한 훈련통지서 직접수령(연대본부)
 - ※ 훈련 불참 또는 훈련통지서 미수령시 교발조치/벌금부과
- 복 장** : 예비군복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고무편, 러리피)
- 휴대품** :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학생증, 면허증)
- 유의 사항**
 - 가. 구파발 정철역 1번 출구에서 북한산 방향으로 200m 지점에 34번 버스를 탑승하여 219연대(종로/중구훈련장)에 08:00이전 정문통과
 - 나. 개인 승용차 운행가능(주차장 완비)
 - ※ 08:00시 이후 훈련장 도착자 입소 불가 (위법소 통제)
 - 다. 예비군복중 1가자라도 미착용 또는 불량자는 입소불가
 - 라.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필히 지참
 - 마. 교통비 및 중식비 개인부담(보충훈련시에는 대학에서 미지원)
 - 바. 개인명단 확인 / 상세문의: 예비군 연대본부

*** 훈련전일 지나친 읍주는 자제 ***

동국대학교 직장예비군 연대

(예비군 연대본부 : ☎ 2260 - 3073 ~ 4)

제38대 총학생회 활동평가 설문조사

총학생회 활동에 비교적 만족

절반 넘는 학생이 관심 밖 ... 총학행사 참여율 낮아

올 한해 제38대 총학생회(회장=정성전·경영4, 이하 총학)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고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 비례추출법으로 우리학교 재학생의 1.7%인 2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총학활동에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총학 활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해 총학생회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그 뒤를 이어 '아니다'는 36.5%로 답해 '그렇다'라 응답한 학생은 16.5%에 그쳤다. 이를 통해 올 한 해 총학의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비교적 낮은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학이 올 한 해 동안 주최한 각종 행사와 관련한 총학 주최 행사 참여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6%가 '거의 참여하지 않음(1~8회 참여)'이라 밝혔다. 34%의 학생들이 '가끔 참여(9~16회 참여)'로 답했다. 올 한해 총학이 준비한 다양한 행사들에 비해 학생들의 참여율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총학 주최

행사 참여도는 총학생회에서 올 3월부터 주최한 중앙 새로배움터, 해오름제, 명사초청강연, 백상대제전, 대동제, 락페스티벌, 목막가요제 등 총 행사 횟수 25회를 5개의 범위로 나눠 조사했다.

총학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보통'이 48.5%, '대체로 만족'이 29%로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다. 학생들이 활동 중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표현한 부분은 강좌별 수석장학관 신설과 학교 내 시설 개선 등에 대한 '교육환경개선'과 시험기간 야식제공, 학생 안행이사제 실시 등에 대한 '학생복지사업', 명사초청강연, 영화 시사회 등의 '각종 행사 주최'였다.

이는 38대 총학의 선거공약실현과 관련해 가장 만족스러운 점을 꼽으라는 질문에서 '학생복지사업'이 36.5%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각종 행사주최'가 20.5%로 그 뒤를 이은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 총학의 공약실현과 관련해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전 학년이 '등록금 협상'을 꼽았으며, 이는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올해 등록금 협상에서

2%하향 조정 중 1%는 학생들의 계좌로 반환하고 또 다른 1%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학생들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제38대 총학의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행사를 준비했지만 학생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유회적 측면만 강조해 면학분위기는 조성하지 못했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시도한 점이 좋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등의 평가가 있었다.

한편 얼마 남지 않은 제39대 총학생회 선거에 투표 여부에 대한 질문에 58.5%가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제38대 총학생회의 투표율이 52.1%인 것과 비교해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학생들 중 선거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46.2%의 학생이 '총학의 활동에 관심없어서'라고 응답해 학생대표기구인 총학의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최미혜 기자
limisonaral@dongguk.edu

제38대 총학생회의 임기가 한달 남짓 남았다. 우리신문에서는 2년 간 총학생회 부재 끝에 건설된 제 38대 총학생회의 1년 간 활동을 짚어 보았다. 편집자

총학을 '즐거찾기'에 추가하셨습니다?

각종 행사 통해 학생들 참여 유도 ... 문화행사에만 치중돼

학생의 요구가 변했다면 학생회의 모습도 변해야 한다며 10년 넘게 운동권의 요람이 되어 온 우리학교 총학생회를 바꾸겠다고 나선 '즐거찾기' 제38대 총학생회(회장=정성전·경영4, 이하 총학).

△한총련 탈퇴 △강좌별 수석 장학제 신설 △100주년 USB 메모리 지급 등 기존의 총학후보 공약들보다 다소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해 학생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던 제38대 총학의 활동과 공약 이행 과정에 관한 1년을 되돌아보자.

▲38대 총학의 대표적인 공약과 활동 제38대 총학생회는 선거 유세 기간부터 '한총련 탈퇴'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워 현재의 변화된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한총련 분담금'으로 지출됐던 부분을 학생들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학 100주년의 해인만큼 1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각종 문화행사 개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내세웠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학종류 증설 및 장학금 인상·등록금 인상 문제를 본관 점거 등을 통한 시위와 투쟁이 아닌 '원탁회의'를 열어 총장 및 각 처부장과의 대화로서 접근하겠다는 것도 기존의 총학 방식과는 차별화된 공약이었다.

▲학생참여 유도하는 각종 행사 마련 총학측은 지난 2월부터 등록금 인상문제 협의를 위한 학교 측과의 원탁회의에 들어갔으며 총 4번의 원탁회의를 걸쳐 개최했다. 최종적으로 지난 4월 7일 학교 측과

협의해 등록금 인상률 2% 하향조정을 합의했다.

이는 타 학교에 비해 비교적 등록금 협상이 빨리 마무리 된 편으로 학교 측과의 소모적 마찰을 줄였지만, 일산병원 건설에 투입된 교비환수문제가 원탁회의의 중구체적으로 언급되지 못했다.

또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행사를 적극적으로 주관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문화, 강연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유명인사를 초청해 강의를 열고, 정기적으로 취업특강을 열어 학생들의 참석을 유도했다. 이는 기존에 비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총학 주최 행사의 비중을 높인 것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관심사를 반영한 행사를 기획·추진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모교방문단, 학생안행이사제 등 학생회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총학생회 활동범위를 넓히고, 총학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문화행사에 초점을 맞춰 다른 분야에 대한 참여 저조

하나 추진행사 중 문화행사의 비중이 높았고 일회성 문화행사 이외의 다른 분야에 대한 사업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방중 수해복구 등의 활동에는 일반학생의 참여가 비교적 저조했다. 이에 대해 사전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총학 내부에서만 활동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누락된 부분은 문제

로 지적된다.

또한 지난 여름방학 중 '한미 FTA 범국민대회 동국대 전야제'가 우리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것을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저지해 총학생회의 행사 저지행위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선거 유세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학생위원회 공약과 관련 현재 여학생회가 비대위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학생위원회의 공식적 활동이 늦어져 여학생위원회에 대한 홍보와 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 역시 아쉬운 점으로 평가된다.

▲남은 기간 동안의 과제 및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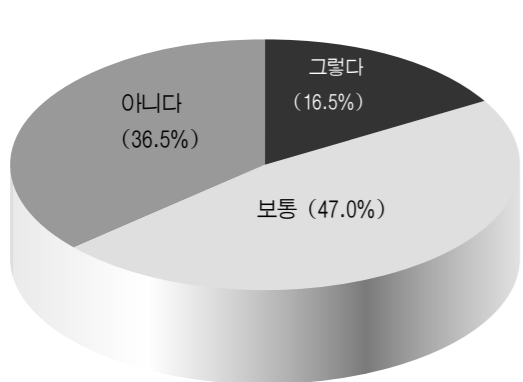
총학은 2학기에는 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까지 진행한 학생복지사업이외에도 지금부터 12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2007학년도 등록금 인상 △총장 선출 상황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우영진 부총학생회장(기계공4)은 "2007년 예산안이 짜여지는 11월 말부터 학교 측과 등록금 인상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며 "11월 말부터 임기가 끝나는 12월 중까지 학교 측과 2007학년도 등록금 인상에 관한 협상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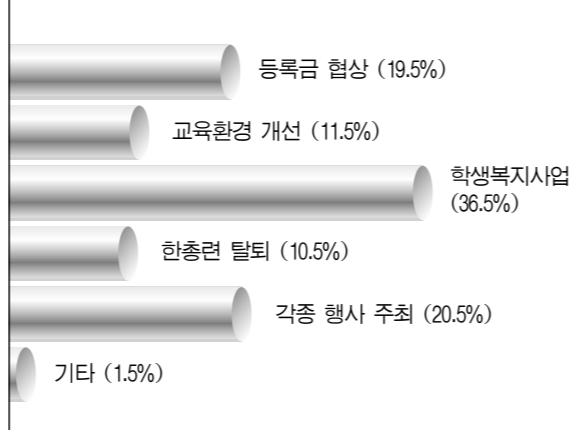
총장추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지혜 기자
iamjhi713@dongguk.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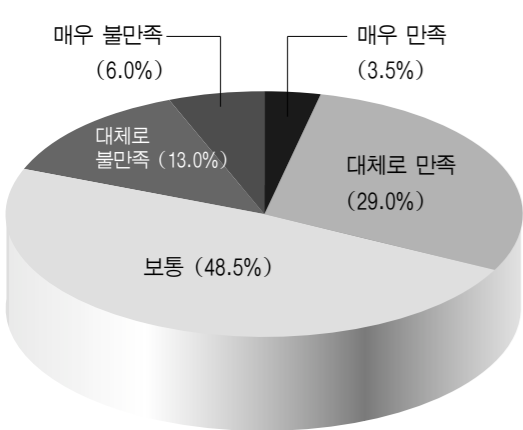
■ 총학생회 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보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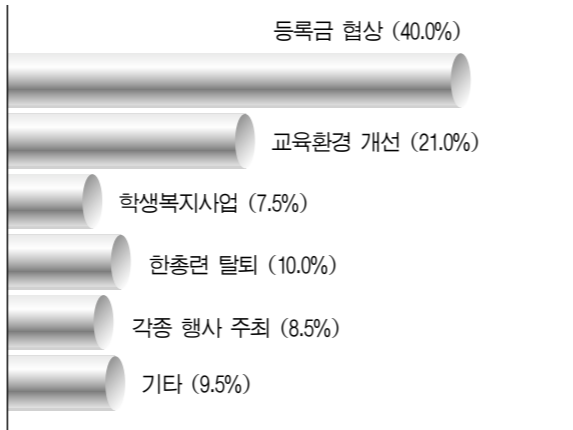
■ 총학생회 활동 중 가장 만족스런 공약은?



■ 총학생회 활동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총학생회 활동 중 가장 불만족스런 공약은?



제38대 총학생회장 인터뷰

“학생회와 학생의 거리감을 좁히게 성과죠”



제38대 정성전(경영4) 총학생회장.

행사까지 치르면 마지막이다.

또한 이번 달에는 내년도 등록금 협상 등 원탁 테이블을 예정하고 있고, 차기 총학생회에 업무인수인계가 남아 있다. 남은 기간도 열심히,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학생회에 대해 갖는 거리감과, 학생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기존 총학생회의 문제점도 있다. 이에 학생회비 내역을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대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지만, 존재감과 역할을 인지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 차기 총학생회에 바라는 점은.
= 문화사업을 통해 학우들에게 다가가고자 한 점에 후회는 없다. 하지만 '문화 분야에 치중했던 역량을 다른 분야에 쏟았다면' 하는 생각이 든다.

처음 총학생회라는 존재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좋아했지만, 후에는 너무 치중되지 않았나 하는 평가도 있었다. 나 역시 제도와 구조적인 분야에는 미흡했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다. 나와 38대 총학생회가 했던 생각을 제39대 총학생회에게 모두 알려주고 싶다. 현 총학의 장점은 유지해 나가고, 단점은 보완해서 학생들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총학이 되었으면 한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학생들은 38대 총학생회에 대해 어떤 점을 아쉬워하고 새로 뽑힐 39대 총학생회에는 어떤 모습을 바라고 있을까?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제39대 총학생회에 바라는 점을 물어본 결과 학생 복지사업에 비중을 높여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38대 총학생회는 시험기간 야식제공, USB메모리 지급 등 학생복지사업과 명사초청강연, 각종 축제마련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이에 윤종현(경영3) 군은 “눈에 보이는 활동으로만 학생들에게 다가가려고 한 것 같다”며 “유회적인 부분에만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축제를 비롯한 행사개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강의환경개선과 리쿠르팅과 같이 학생들의 직접적인 관심사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로 뽑힐 총학은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세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더불어 행사내용 또한 많은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지난 해 학교가 선거에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학교측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우려하는 의

견도 있었다.

또한 현재 분리남부하고 있는 학생회비에 대한 활동내역을 공개해 학생들의 신뢰를 얻는데 주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감사 역시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8대 총학생회는 남은 임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학생을 위해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

더불어 앞으로 뽑힐 39대 총학은 학생들을 위한 공약으로 책임감 있는 학생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제39대 총학생회에게 바란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건학 100주년 사업을 돌아 본다

화합의 장 마련 ... 행사 편중 등 문제 지적돼

건학 100주년의 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다. 우리학교는 건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건학 100주년기념사업회'를 구성해 10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했다.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은 △건학이념 구현 △역사정립사업 △행사·홍보 △학술·편찬 △건립사업 분야로 나뉘어 추진됐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실행·마무리 단계에 있고, 남은 행사는 학술대회 및 송년회 등 100주년의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행사가 12월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번 기획에서는 건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어떠한 행사들이 진행됐는지 되돌아 보았다.

건학 10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면서 동문과 학생, 교직원에게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들이 진행됐다. 특히 개교기념일이 있는 5월에는 100주년을 기념하는 홍보 및 행사들이 비중있게 치러졌다. 동문 및 종교계 인사 등 내·외부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낸 다양한 행사들은 긍정적으로 작용

해 구성원의 결속력 강화와 각종 홍보를 통해 대외적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일회성에 그치고, 1학기에만 치중돼 한 해 동안 100주년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행사가 조화롭게 기획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동국100년 서포터즈'를 발족시켰으며 이는 재학생들로 하여금 홍보사절단으로서 학교 대내외적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높게 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초대 서포터즈 단장으로 활동했던 홍준기(신방4) 군은 "주요행사들이 있었던 1학기에 비해 2학기에는 비교적 학교 측의 지원이 적어 서포터즈 자체적 행사를 많이 시행하지 못했다"며 "학생들이 주축이 된 자체적 행사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국100년 서포터즈'는 명칭을 '동강'으로 변경해 앞으로도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100주년 기념사업이 장기적

으로 진행되다 보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락페스티벌의 경우, 행사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의사소통과 업무상의 문제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담당자가 바뀌어 전문성을 살린 업무를 진행하지 못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건학 100주년'의 타이틀을 달고 진행됐지만 기존의 행사를 그대로 답습하는 식으로 이뤄지기도 해 아쉬움을 남긴 경우도 있었다.

비전선포식 및 각종 100주년 관련 행사가 진행되면서 대외적 홍보도 늘어 이로 인한 학교 이미지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행사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개선하고 긍정적 효과들을 통해 앞으로 건학 100주년 의미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조의연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본부장 인터뷰

“모두의 성원으로 이뤄진 값진 100주년”



올해 수많은 건학 100주년기념사업들을 치러내거까지 학내·외에서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

기념사업이 몇 개 남지 않은 지금, 건학100주년을 마감하는 조의연(영어영문학) 건학100주년기념사업회 사업본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건학 100주년을 치른 소감은.
= 감개무량하다. 모교 100주년의 역

사를 기념하는 행사를 무사히 잘 치른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 20만 명에 이르는 동문들, 학교 안팎에서 동국대를 사랑해주신 모든 이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0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산술적 개념이 아니라, 동국대학교의 미래와 희망을 새롭게 설계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심리적인 기호이다. 100주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시작하려는 모든 동국인의 다짐과 각오가 중요하다.

- 건학100주년 기념사업들을 평가해보면.
= 준비기간이 그리 넉넉지 않았고, 예산도 풍족한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동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한데 모아 100주년을 잘 치러냈다. 이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가장 성공적인 분야는 홍보에 있지 않았나 싶다. 우리학교 100주년을 타 대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고 자부한다. 그다음 동문사회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모교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계

기를 제공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고 자평한다.

기념사업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 특히 서울캠퍼스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 특히 서울캠퍼스에 번듯한 100주년 기념관을 마련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100주년을 맞는 올해 신공학관과 기숙사 건립추진 계획을 매듭지을 예정이다.

- 앞으로 100주년기념사업본부의 계획은.
= 100주년기념사업본부는 공식적으로 2007년 2월 말까지만 존속한다. 공식기구 편제는 해체된다는 뜻인데, 10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향후 우리학교의 발전전략을 새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테스크포스팀을 따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는 차기총장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내가 답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끝으로, 100주년을 맞아 우리학교를 사랑해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분야별로 살펴본 건학 100주년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이 대부분 마무리 돼 가고 있다. 우리신문에서는 그동안 진행됐던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을 평가해 본다. 편집자

행사·홍보분야



▲행사분야=개교기념일 당일인 5월 8일에는 100주년 기념식이 만해광장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에는 법정 조계종 종정,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이명박 서울시장 등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해 건학 100주년을 축하했다.

5월 9일에는 'KBS 열린 음악회'가 우리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공중파로 방송돼 우리학교 100주년을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우리학교 응원단 및 서포터즈가 직접 출연해 더욱 뜻있는 행사가 되었다.

학내 구성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까지 함께한 자리를 마련해 좋은 평가를 받

았다. 하지만 출연진 중 토니안과 이승기를 제외한 우리학교 출신 가수들이 공연을 취소해 아쉬움을 남겼으며, 공연도중 대다수의 관객들이 빠져나가 미성숙한 관람문화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5월 13일에는 '동국인 한마당'이 진행돼 20만 동문이 한데 어우러지는 자리도 마련됐다. 총 4,200여 명이 참가했는데, 각종 무대공연과 더불어 학과모임 등 다양한 행사가 꾸며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학교의 공식 Home-Coming Day행사 정례화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다양한 연령층이 모두 모여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가 부족했으며, 학생프로그램 운영이 부족해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4월에는 '총무로 열린 영화 축전'도 열렸다. 그러나 지자체 선거와 맞물려 중구군의 지원을 받지 못해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극장대외와 영화상영과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데다가 사전 홍보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당초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참여한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홍보분야=개교 기념일 직전 주요 신문지상을 통해 대대적인 100주년 연속광고를 내보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

이여령 박사, 현각 스님 등 사회적 저명 인사들이 10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홍기삼 총장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기쁨으로 짜여진 홍보광고가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대외적으로 100주년을 홍보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지난 5월 8일 기념 우표를 발행하고 우표점을 제작했다. 2백만개의 우표 중에 2,000장만을 학교에 남겨두고 전국으로 배포해 학교홍보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지난 해 10월 학교홍보와 각종 발전기금 마련을 위해 연예인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현재 연예인홍보대사는 우리학교에서 초청강연도 하고 있으며 CF 출연료를 우리학교로 기부하고 있다.

김나리 기자 vik26@dongguk.edu



학술·편찬분야



▲학술분야=우리 학교는 건학100주년을 맞아 학술과 편찬 부분에서도 활발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한 해 동안 학술대회 등 학문적 성과를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특히 지난 5월에는 21세기 문제로 지적되는 환경과 생태문제에 대해 불교 사상을 기초로 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내 12명, 국외 11명의 학자가 참여하여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일에는 '글로벌시대 인문학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중산대학교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지난 해 중산대학교의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난 뒤,

제1회 학술대회를 건학 100주년을 맞이한 우리 학교에서 개최한 점이 특색이다. 학술분야 사업은 큰 주제로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빙하여 연구와 논의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확산시키고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학제적 연구의 업적 발표가 국외학자에게 제대로 통역되지 않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발표가 단순한 자료 읽기에 지나지 않아 토론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편찬분야=다양한 편찬 사업을 통해 학교의 학문적 업적을 제고하고자 건학 100주년 기념 편찬사업이 이루어졌다. 대표적 작업이 100년사 편찬이다. 총 4권으로 계획된 100년사 중에서 제1권 '백년의 길·역사편'이 지난 10월 23일 발간됐다. 나머지 3권도 올해 안에 발간될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분야에서는 진행 상황이 부진한 실정이다. 우리말불교개념사전을 비롯한 6개 분야 총 45권의 출판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불교생태학총서' 6권 출판 이외에는 발간이 미뤄지고 있다.

출판부 김두재 과장은 "출판부 일정이 있는 상태에서 100주년 기념사업을 맡아 인력이 부족하고 출판부 자체 비용이 부족해 일부 서적의 출판이 미뤄지고 있

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서사문학대계'와 '한국불교 시가문학대계'는 외부 출판사인 보고서와 계약이 끝나 다음해 2월에 완간 예정이나 나머지 책은 아직 출판 일정이 미지수이다.

또한 박물관 도록이 새로 발간되었다. 도록 발간은 우리 학교 소장 박물관 유물사진을 모아 출판해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해부터 수록될 작품을 선정하고 촬영, 자료수집을 통해 업체선정을 마치고 지난 10월 17일에 간행되었다.

이송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건학이념 구현분야



지난 3월 17일 북한건학기여 사찰 방문단은 우리학교 건학에 기여한 5개의 북한 소재 사찰 중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묘향산 보현사를 방문하고, 북한 최고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과 학술연구 및 협력사업 등의 교류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건학정신과 근대적 불교 교육제도의 성립과정에 대한 학술적 조명을 통하여 우리학교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동국의 건학정신과 불교교육의 근대화'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4월 21일 열렸다.

이 학술대회는 우리학교 100년간의 역사적 회고와 건학정신의 현대적 의미

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동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학문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외부의 종단 관계자와 불교계 단체의 참여에 비해 학내 구성원의 참여 비율이 낮았던 점이 아쉬웠다.

건학 100주년을 기념하고 기존의 불교 종립학교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마련한 전통등 전시회는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약 한달 간 교내 팔정도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교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이를 홍보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초대, 살사댄스 공연, 음악 콘서트인 달빛연등축제를 열어 큰 호응을 받았다.

〈담〉 ssundam@dongguk.edu



건립사업분야

건립사업분야는 학교 시설 및 구성원 공간활용을 위한 건설사업에 중점을 맞춰 진행됐다. 현재 만해관, 중앙도서관, 일산불교병원 건립과 공간 활용을 하고 있다. 100주년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정문조형물 설치는 심사평가 위원회와 100주년 사업팀의 논의를 거쳐 '동국백년비'를 세우고 백년비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대체됐다. 이와 관련해 시설관리팀 박정훈 팀장은 "100주년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조형 디자인이 선정되지 않아 심사위원회와 학교 측간에 논의 끝에 조형물설치를 백년비를 세우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성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공학관·기숙사 건설은 개교기념일인 지난 5월 8일 기공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계획보다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이번 신공학관·기숙사 건설은 기존에 시행돼 왔던 업체 선정 및 건설 방식과는 다른 BTL방식(민간유치방식)을 택해 사업이 이뤄지기에 현재 사업자 선정과 기준을 검토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안사무처의 관계자는 "계약 체결 당사자가 학교 법인이고 기존의 사업방식과 다르게 사업자

선정이나 과정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현재 감사과정을 거쳐 현재 2개의 컨소시엄이 건설을 제안한 상황이다.

전반적인 기준과 사업진행과정에 검토를 거친 후 사업체가 선정되면 평가위원회가 사업체를 심사한다.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한 후 건설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공학과 기숙사는 교비와 민자유치를 통해 기금을 마련해 건설된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이란?

민간자유투자사업으로서 사업자가 단위 사업을 선정해 공고하면 입찰 의향이 있는 업체 쪽에서 설비, 구조, 건축 부문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다. 제안서는 재무적으로 투자하는 은행과 운영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출하게 된다. 사업자는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해 평가하고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면 사업자는 선정된 업체와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해 실시 계획에 대해 협의한 후, 실시 계획을 설계·승인해 착공에 들어간다.

역사 정립분야



지난 5월 4일부터 28일간 중앙도서관에서는 '동국백년전'이 열렸다. 이 전시회의 자료 수집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했다. 시대별 대학을 대표하는 학술활동, 학생활동, 동문들의 활약상을 통해 전 동국 구성원에게 우리대학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유도한 것이 '동국백년전'의 취지다.

교사자료 수집을 위해 과거자료를 바탕으로 탐문수집을 하거나 동문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요청하고 각 기관을 찾아가 자료를 찾아보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했다.

하지만 동국백년전이 100주년을 맞이한 일회성 행사에만 그치게 된 것은 안

타깝다. 또한 이번행사 자료수집 과정에서 이 분야 전문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면서 우리학교자료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되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쉬웠다.

'동국대학교 국보전'은 지난 5월 3일부터 우리학교 박물관에서 열렸다. 우리학교가 소장한 국보 25점과 고려불화5점 등 1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전시기간동안 관련전공자 등 국내외에서 5~6천여 명의 사람들이 관람했다.

다만 박물관 공사가 늦어져 전시시작 하루 전까지 바쁘게 전시를 준비하는 바람에 부대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박물관 측은 "하지만 전시회를 마치고 나니 오히려 부대행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편이 낫았다"며 "또한 고려불화 5점은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작품이었기 때문에 좋은 전시회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23일 타임캡슐 봉안식이 있었다. 116품목 489개의 물품을 타임캡슐에 담았다.

타임캡슐 봉안 행사는 100주년을 고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타임캡슐이 개봉되는 100년 후의 동국인들에게 현재와 연결고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외국 장애인 캠프 체험기②

외국의 장애인 캠프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체험에 대해 우리학교 UBC 교환학생 이재인 군을 통해 3회에 걸쳐 들어본다. 편집자

나를 변화시키는 9주의 시간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다

게리와의 첫 만남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의문점 투성이었다. 무엇보다 정확한 방향 없이 실수의 반복으로 나를 이끌어간 그런 시간의 연속에서 나를 일깨워준 사람이 있었다. 나의 첫 캠프였던 게리였다.

그는 47살로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하여 위와 연결된 관을 통하여 필수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살아간다. 물론 스스로 거동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여 좌의 시간을 제외하면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했다. 이런 중증 장애인을 첫 캠프로 맞은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나 게리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특수제작된 장비로 그의 의사만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 장비의 사용조차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게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마음속으로 밀려오는 답답함을 참지 못해 일과가 끝난 후에는 1년 동안 기다린 그의 캠프에 나를 만나서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미안한 생각에, 그리고 바보같이 느껴진 나의 모습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캠프, 눈물 그 이상의 가치

그렇게 하루, 이들이 지나고 첫 세션의 마지막 날 게리가 캠프를 마치고 돌아가는 날이 되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여수룩한 나의 행동에 화를 내지 않고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던 그 마음 너그러워 게리가 그의 벤에 올라타기 전 나를 향해 두팔을 벌리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서로에 대한 사랑이, 벅찬 감동이 우리 주위를 휘감았다. 그는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다. 비록 정상인처럼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한 그의 47번째 여름을 나와 함께 기억하려 했던 것이었다. 나와 그가 다른 것은 단지 내가 좀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좀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 뿐이었다. 그의 영혼과 나의 영혼은 모두가 동시에 살아 있으며 동일한 상황에서 나와 같



룸메이트였던 Steven과 자유의 여신상 부두 앞에서.

은 감정을 가진 생동하는 영혼인 것이었다. 그가 보여준 눈물은 내겐 눈물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소중한 선물이었다.

었다. 여기서 나의 이야기를 모두 나눌 수는 없지만 하루에 5번 넘게 기저귀를 갈아야 했던 캠프들...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벗어서 주위를 난감하게 했던 사건 등의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부터 예기치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발작증세, 취침시간에 몽유병 증세로 캐빈 밖을 헤매던 6살짜리 지어를 찾아 헤매던 심각했던 일까지 아직도 2달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진다. 그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나는 천사들로 기억한다.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세계 각국에서 날아온 스테프들과 티없이 순수한 눈빛과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캠프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을까?

9주간의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아온 친구들은 이제 단순한 외국인 친구를 넘어서 서로의 표정만으로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친한 친구가 되었다.

이재인 (사범대 교육3 휴학중 · 현 UBC 교환학생)

천사들과 함께 보낸 24일

지난 24년간 가져왔던 나와 함께 했던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깨는 데는 채 24일도 걸리지 않았다. 얼마나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절실히 느낀 시간이었다.

캠프의 감동과 의미를 느낀 내게 이후의 시간은 꿈같은 시간이었다. 그래서인지 이후의 시간은 굉장히 빨리 지나간 듯하다. 게리 이후에도 난 7명의 캠프를 더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 중에는 발달장애를 가진 12세의 테일러와 57세의 정신질환을 가진 크리스찬도 있



캠프 후 요세미티 국립공원.

보리수

法の 종교

불교인은 누구나 삼귀오계(三歸五戒)를 받는다. 즉 삼보를 공경하고 오계를 준수하려는 노력은 불자들의 전형인 셈이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근본정신이 얼마만큼 지켜지느냐에 대한 회의가 들 때도 있다.

종교는 관념이어서도 안 되고, 형식일 수도 없다. 내면의 중심적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야 하고, 또 그 내면의 물결이 잔잔히 바깥을 향해 흘러 내려야 한다.

삼귀는 불·법·승을 가리키는데, 종교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한결같이 그 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불이란 교조를 가리키고, 법은 그 종교의 진리, 그리고 승은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다. 기독교는 이 셋 중에 그 첫 번째, 즉 교조에 약

센트를 둔 경우이다. 예수를 통하지 않은 구원은 상상도 할 수 없다. 또 교조에 대한 권위는 2천년을 넘게 지속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불교는 석가모니에 대해 절대적 존경을 기대하지 않는다. 깨달은 자는 부처이기 때문에 석가만이 부처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조에 대한 맹목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특이한 종교전통이다. 리버럴하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전통의 계승이라는 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석가모니 열반 직후에 20여 부파가 난립한 저간의 사정 또한 위의 불교적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불교의 중심, 그 권위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법이다. 석가 또한 상신 이후에는 '법'이 교단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유훈(遺訓)에서 지적한 바 있다. 부파불교를 아비달마(阿毘達磨)라고 하는데, 그때 아비(Abhi)는 '해석', '주석(註釋)'의 뜻이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천착하고 해석하는 불교라는 뜻이다. 물론 부파불교는 법에 대한 형식적 해석과 번쇄적 측면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병조 문과대학 윤리문화학과 교수

얼린글터

독자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만화, 만평, 4매 분량의 글 등을 게재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ongguk.edu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선물보다 더 중요한 마음

연인이 있는 사람이라면 손꼽아 기다릴 수도 있는 그런 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 어찌면 며칠을 고민 고민 해야 할 그런 날이 14일의 기념일일 것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데이'라고만 쳐도 무수하게 검색되어 나오는 이러한 기념일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베베로데이 말고도 실버데이, 와인데이, 허그데이 등 '이런 것들을 매년 챙기는 연인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기념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랄 정도이다.

베베로데이를 앞둔 날에 제과점이

나 팬시점, 슈퍼마켓, 인터넷 쇼핑 사이트 등에서는 베베로가 불티나게 팔려나간다. 다양한 베베로들이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개성 있는 선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특별한 선물을 사기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다.

"기업들이 만든 상업적 사물에 사람들이 빠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무리한 억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상품을 사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초콜릿이나 베베로로써 사랑을 표

현하고 나눌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인 것이다. 하지만 언제 부턴가 "선물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라는 말이 무색해져 버린 듯 한 요즘의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뿐이다.

진정한 선물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든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진짜 요인은 아마도 선물 자체보다는 선물을 줄때의 상대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일 것이다.

서둘러 포장된 싸구려 선물일지라도 상대를 생각하는 진정한 마음만 담겨져 있다면 몇 만원을 호가하는 값비싼 선물들보다 더 몇 배는 가치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신다는 (사과대1)

학교 내 체벌에 관하여

얼마 전, 학교 체벌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정말 보기에도 심한 체벌이 행해지는 동영상도 공공연하게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었다.

동영상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학생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그런 정도로 구타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 사건을 보면서 나는 나의 학생 시절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당시 분위기는 체벌이 공공연하게 허락이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학생들조차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학교에는 유희 금지 투성이었고, 맞기 싫어서 아침도 거른 채 제 시간에 등교하

고, 맞기 싫어서 공부를 하고, 맞기 싫어서 무엇이든 했던 것 같다.

아직도 우리나라 많은 학교에서는 체벌이 공공연하게 행하여지고 있을 것이다. 폭력이라는 것이 단시간에는 그 행동양식을 변화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단시간에 효과가 빨리 나타나니, 그런 일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좀더 멀리 보면 그런 것은 오히려 반발심과 굴욕감만 일으키고 있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체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체벌이 없어지면 학생들의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든다. 물론 가시적

으로는 나쁜 습관이 없어질 수 있지만, 그 학생들 본심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면 그런 가시적 효과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체벌보다는 학생들을 이해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욱 더 학생에게는 도움이 된다. 이처럼 폭력적인 체벌 말고도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도 사람이며 인격을 가지고 있다. 아직 어리다고, 덜 성숙했다고, 어린 인격을 무시하고 체벌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육이 바로 서야 우리 사회가 바로 서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자라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더욱 더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강한 (공과대 전기공)

자신에게 솔직한 '내'가 되자

사람들은 속는다. 온라인에서 채팅하다가도 속고, 친구한테 돈 꾸렸다가 속고. 또 속고, 통계를 따져보면, 연간 수익 건에 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나는 하도 많이 사람들에게 속아서 뭐가 문제일까 계속 고민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던 중 어떤 글을 통해 해답을 얻었다. 사람이 우선 자기 자신에게 속으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속는다는 것이 요지인 글이었다. 그 글을 보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을 때, 내 자신이

이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항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으면, 문제의 원인은 항상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분명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결함이 있어야 정상일 텐데 오히려 없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속아 넘어간다. 다만, 자기 자신이 이상이 없다고 믿는 순간부터 아무런 특별한 사람도 계속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고 잘못은 언제나 남의 탓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말도 안 듣게 되고, 누군가 속이지 않아도 사람은 속

이러는 마음이 없어도 제풀에 속아 넘어간다. 또 이런 상태가 되면 자기 귀에 솔직한 말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속이는 건 비위만 조금 맞춰주면 간단해진다.

누가 말하길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인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외면하려고 하게 되면, 점점 자신과는 다른 상상속의 자신을 만들고 진짜 자신은 점차 모르게 되는 것이다. 자기에게 솔직해지면 그나마도 좀 덜 속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속는 건 항상 나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이종학 (문과대 철학1)



독자 사진첩

명진관 앞 갤러리

사진예술연구회 동아리 '동그라미'가 제 37회 정기 전시회를 엽니다. 11월 13일부터 18일 연 베퍼시호텔 맞은편 후지사진연구소 3층에서 진행되는 전시회에 사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동아리 '동그라미'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시기성 살리는 기사로 독자들의 관심 끌여

우리학교가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는 1면 기사는 학생들에게 동국대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었다. 지난 학기에 2단계 BK21에서 많은 분야가 선정되지 않아 아쉬웠지만 이번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 선정으로 BK21에 대한 전망이 밝아진 것 같다.

동국대에서는 우리학교에서 발생한 KTX 지각생 문제를 다뤄 주제는 시기적으로 괜찮았다. 하지만 기자가 동국대나 수험생쪽 편을 드는 것을 피하고 언론이 우리학교만 집중 조명한 것을 다뤄 내용면에서 아

쉬웠다. 기획취재면에서 다뤄진 학생식당에 관한 기사는 관심이 많이 갔다.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학생식당을 자주 이용하지만 이용할 때마다 개선이 필요한 점들이 여럿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다른 학교의 특징을 보여준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학교도 우리학교만의 새로운 무언가를 제공해주었으면 한다. 설문조사 분석에서는 조사인원이 200명뿐이었다는 것이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의심케 했다.

여론 칼럼면에서는 지난호와 다르게 교환학생의 체험기가 실려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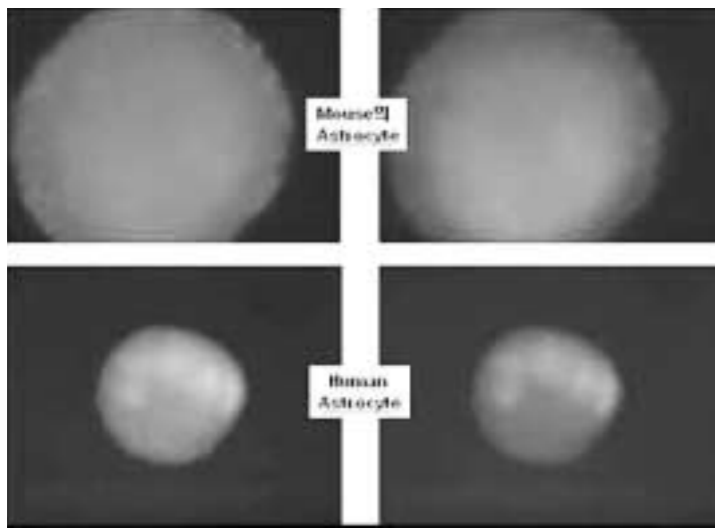
선한 느낌을 주었다. 게다가 독자사진첩 말고는 전부 글로 가득차있던 여론 칼럼면에 사진이 여러 장 실려 기존보다 여유있는 지면이었다. 보리수에서 다뤄진 '번역'은 이미영 역경위원회에서 옛날에 경전 번역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예로 들면서 쉽게 써주셨다. 마시멜로이야기의 당을 자주 이용하지만 이용할 때마다 개선이 필요한 점들이 여럿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다른 학교의 특징을 보여준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학교도 우리학교만의 새로운 무언가를 제공해주었으면 한다. 설문조사 분석에서는 조사인원이 200명뿐이었다는 것이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의심케 했다.

박성진 (공과대 전기공1)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원 향	
금 주 의 식 단	월 (11/13)	손만두국 (2000) 해물굴소스볶음밥 (2000) 인동찜닭 (2000)	쇠고기국밥 (2000) 제육볶음 (2000) 콩나물비빔밥 (2000)	원장찌개 (3200) 김치찌개 (3500) 이구찜 (3800)	김치콩나물국 (2300) 불고기전골 (2900) 치즈알밥 (2900)
	화 (11/14)	부대찌개 (2000) 치즈볼닭 (2500) 찜빵덮밥 (2000)	참치찌개 (2000) 쇠고기브로컬리볶음밥 (2200) 북어계란국 (2000)	원장찌개 (3200) 완자전골 (3500) 황태구이 (3800)	순두부국 (2300) 돌솥산채비빔밥 (2900) 동대매운탕 (2900)
	수 (11/15)	사골우거지탕 (2000) 참치김치덮밥 (2000) 섭산적구이백반 (2000)	설렁탕 (2000) 간자장밥 (2000) 닭도리탕 (2000)	원장찌개 (3200) 동대매운탕 (3500) 삼겹살김치볶음 (3500)	쇠고기미역국 (2300) 수제함박스테이크 (2900) 버섯육개장 (2900)
	목 (11/16)	제육비빔밥 (2000) 함박스테이크 (2200) 간동국 (2000)	돈육찌개 (2200) 오삼불고기 (2000) 김치볶음밥 (2000)	원장찌개 (3200) 비프커피렛 (5000) 산채비빔밥 (3500)	아욱된장국 (2300) 떡볶이그추장불고기 (2900) 낙지철판볶음&소면 (2900)
금 (11/17)	장조림백반 (2000) 모듬볶음밥 (2000) 제육갯잎볶음 (2000)	꼬치어묵우동 (2000) 닭강정 (2000) 순대볶음 (2000)	원장찌개 (3200) 김치불고기술밥 (3500) 해물덮밥 (3800)	복어해장국 (2300) 베이컨김치볶음밥 (2900) 공치김치찌개 (2900)	

세계 최초 줄기세포의 역분화 기술 개발

빠르고 효율적인 줄기세포 증식 ... 난치병 치료법 발견의 실마리 제시



사람과 쥐의 성상세포에서 역분화 줄기세포 확인

지난달 25일 우리학교는 주식회사 임젠과 줄기세포은행 설립추진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바이오 벤처기업인 임젠은 난자나 탯줄혈액·골수 없이 환자 체세포를 곧바로 줄기세포로 만드는 역분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역분화 줄기세포(Induced multipotent Stem Cell)는 다음과 같다.

줄기세포(Stem Cell)는 심장이나 간, 피부 조직 등의 구체적인 장기나 조직을 형성하기 직전 단계의 세포로서, 여러 종류의 세포

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세포를 말하며, 크게 배아 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와 성체 줄기세포(Adult Stem Cell)로 나눈다.

배아 줄기세포는 수정 후 인간을 구성하는 약 210여종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전능 세포(Pluripotent Cell)이며, 성체 줄기세포는 제대혈, 골수, 혈액 등에서 추출한 다

능성 줄기세포(multipotent Stem Cell)를 말한다. 이들은 상처받거나 교체되어야 하는 세포나 조직의 재생과정에서 필요한 세포로 분화하는 역할을 한다.

성체 줄기세포는 배아 줄기세포에 비해서 분화능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생명 윤리문제 등의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체 줄기세포는 체내에 적은 수로 존재(골수:1/15,000, 제대혈:1/7,500)하며, 특

정 지표가 되는 분자(Marker)들의 존재 유무에 근거하여 분리·정제 후 증식과정을 거쳐 획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 동안에 세포의 손실이 많다.

그에 비하여 역분화 유도 줄기세포는 이미 분화가 이루어진 체세포(Somatic Cell)를 특정 성장인자들로 처리하여 줄기세포로 유도한다. 이는 기존의 방법보다 줄기세포 증식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뤄진다.

임젠에서는 모낭세포 등에 이들 성장인자 조합을 처리하여 신경세포, 근육세포, 조골세포 등으로 분화가 가능한 줄기세포를 개발했으며, 인간의 다양한 역분화 줄기세포를 신경세포, 간세포, 췌장세포(인슐린 분비세포) 등으로 분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했다.

역분화 줄기세포에 대한 기술을 척수손상, 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당뇨병, 탈모, 피부 손상 등에 적용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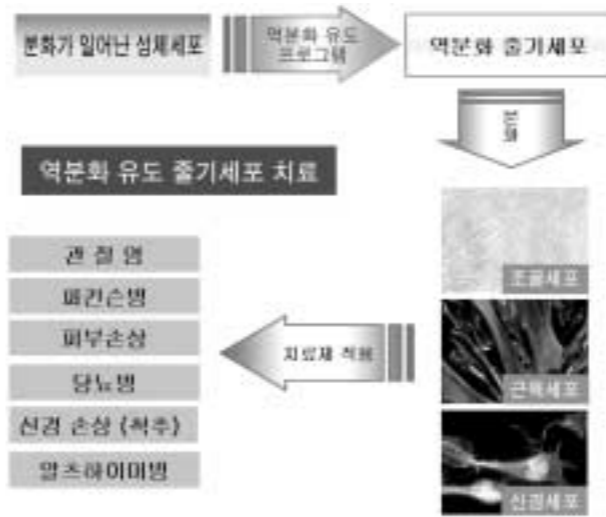
역분화 줄기세포의 이용은 척수마비 환자의 모낭세포를 채취하여, 임젠의 역분화 유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줄기세포로 유도하며, 유도된 역분화 줄기세포를 다시 신경세포 분화 프로그램을 처리 한 후, 환자의 척수에 이식하여 손상된 척수를 복원하

게 된다.

임젠은 척수 손상에 대해서 동물 실험을 완료해 전임상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09년에는 척수 손상에 대한 역분화 줄기세포 치료제의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역분화 유도 줄기세포 관련 국내의 특허를 8건 출원했으며, 6건은 출원 중에 있다. 이와 같이 역분화 줄기세포 치료제의 개발은 단순한 이익 창출의 수단이 아닌, 난치성 질병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허윤호 (주)임젠 사업개발팀 총괄팀장



달하나 천강에

소외된 압록강의 국경문제도 관심 필요



서인범 동국대학 사학과 교수

지난 여름방학 중에 대학원생과 함께 대련(大連), 단둥(丹東), 호산장성(虎山長城), 심양(瀋陽), 요양(遼陽)을 답사하였다. 특히 도도히 흘러가는 압록강 위에 걸쳐 있는 중조우의교(中朝友誼橋)와 6·25때 파괴된 철교를 보며 민족의 비극을 곱씹어 보기도 하였다.

그런데 단둥시내 서점에서 압록강이 표시된 지도를 한 장 구입하였는데,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신의주가 위치한 압록강의 북한측 연안을 영토 분기점으로 구획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귀국해 우리나라에서 발간한 지도책을 조사해보니 중국과는 달리 압록강 대안의 단둥쪽을 국경선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압록강 가운데 산재되어 있는 도서(島嶼)와 사주(沙洲)를 각각 자국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중국의 주은래와 북한의 김일성 사이에 맺어진 국경조약과, 그 후 2년 뒤인 1964년 3월 20일에 북경에서 중국의 진의와 북한의 박성철이 서명한 '중·조 국경에 관한 의정서'를 살펴보면 압록강 경계 하천의 도서와 사주를 확정할 당시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에 도서와 사주가 451개 존재하였다. 이 중 조선에 귀속된 것이 264개, 중국에 귀속된 것이 187개였다.

현재 북한영토인 위화도는 이성계가 회군을 단행한 역사적인 장소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이 섬은 물레가 40리로 토지가 비옥하여 일찍부터 의주 백성들이 건너가 경작을 하였다. 그러나 중국 백성들이 불법으로 위화도로 들어와 경작을 하게 되면서 의주 백성들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조선은 중국에 중국인들의 경작을 금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여진족의 침입으로 경작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방기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위화도는 갈대밭으로 변하여 사냥터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 위화도의 경작과 방기를 둘러싸고 조선 조정에서는 끊임없는 논쟁이 벌어졌다. 성종연간의 대신들은 위화도가 압록강 건너편에 있어 중국 땅이라고 여겼다. 또 다른 대신 중에는 여진족의 침입을 받아 황폐화되었으니 버려도 경계에 손실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종종도 위화도는 국경 밖에 있어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런데 일찍이 세조는 위화도 등의 경작을 포기하지는 대신들의 의견에 대해 '옛날에는 한번에 100리씩 나라를 넓혔는데, 이제 버리고 경작하지 않으면 이것은 날로 100리씩 나라를 줄이는 것이니, 경작을 폐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였다. 세조는 영토문제에 있어서 선견지명의 군주였다. 세조의 영단으로 위화도는 우리 영토가 되었던 것이다.

현재까지 영토문제는 간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압록강하구 연안에 산재해 있는 도서와 사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잠깐된 신의주 경제 특구도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통일 후 양국 간에는 국경선 확정 논란, 하천도서의 귀속, 홍수로 인한 압록강 유로의 변천, 수리 이용, 하천 오염, 월경 등의 문제는 재론이 불가피한 역사적 현실로 대두될 것임에 틀림없다. 세조의 영단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때이다.

이야기 동국 100년사

불교문화를 기반으로 새로 선 캠퍼스

16 경주대학의 설립



경주대학 건설 기본계획 조감도

1978년 10월, 문교부는 서울시내에 소재한 대학에 모집정원 증원을 일괄 허용하지 않는 대신, 지방 불교의 설립을 통한 증원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학교는 1978년 10월 7일 경주분교의 설치를 인가 받았다. 당시 우리학교가 승인 받은 모집정원은 한의예과 등 10학과 400명이었다.

신라문화의 발상지인 경주에 불교가 설립된 것은 우리학교의 건학이념과 경주지역 문화가 불교문화라는 공통적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이곳에 대학이 들어서는 것은 단순한 외적

확장 이상으로 민족문화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 일이었다. 또 한의예과가 신설된 것은 의과대학이 없던 우리학교의 속원사업 중 하나가 해결된 것으로, 향후 경주대학 발전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분교 설립이 확정되자 우리학교는 1978년 11월 27일에 건설위원회를 발족하고, 2월 23일에 '경주대학 건설본부'를 신설하였다. 경주대학이 들어설 부지는 월성군 건곡면 금장리 일대 18만 6,000여 평이었다.

학교당국은 경주캠퍼스 조성을 위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 기간 중 대학본부·도서관·박물관·대강당·학생회관·의대 부속기관·교수아파트 등 총 45개 동에 연건평 1만 9,380평 규모의 건물과 부대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경주대학은 신입생 모집 첫해인 1979년도에 400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3월 1일부터 개강하였다. 초기에는 강의실 등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인근 고등학교 건물을 사용하는 등 많은 어려움

을 겪기도 했으나 캠퍼스 조성계획에 따라 차례로 건물이 들어서면서 점차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기 시작했다.

1979년 6월에 착공한 인문사회학관이 1년 3개월만인 1980년 9월에 완공되었고, 1981년 3월에는 한의학관이 완공되었다. 또 1982년 1월에 기숙사가 완공되었으며, 1983년 2월에는 도서관이 완공되었다. 이어 1984년에는 경대교(慶大橋)와 경주시 동천동의 교직원아파트, 실내체육관, 학생회관 등이 들어서 명실공히 대학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경주대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경주지역 최고의 명문캠퍼스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한의예과를 중심으로 영남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고 지역사회에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산학연 연계를 통하여 영남지역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용범 소설가·동국 100년사 대표 집필자

11월 독서토론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교양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독서토론을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1월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독서토론 프로그램이란** : 학생(대학원생 포함)들과 독서토론을 원하는 도서 신청받아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임.
- 일 정**
 - 일 시 : 11월 30일(목) 오후 5시 - 7시
 - 장 소 : 중앙도서관 사회과학실(지하1층) 특수자료실
 - 진 행 : 경영학과 이상현 교수
 - 선정도서 : 쇼팽의 과학/ 파코 언더힐 자음, 세종서적 2000
 - 정 원 : 10명
- 신청방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광경>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토론도서 관련 동아리의 단체신청과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신청도서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독서토론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중앙도서관 독서증진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
* 토론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도서상품권(1만원)이 지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34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English Clinic 접수 안내

English Clinic 은 국제교육원 소속의 원어민 교수님들에게 영어에 관한 자신의 상담 분야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클리닉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평소에 강의실이나 학원에서도 숙시원해 해결해주지 못했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자 무료 개선프로그램입니다.

1. 클리닉 시간 : 30분 (주 1회)
2. 클리닉 분야 : Writing / Speech
3. 클리닉 인원 : 개인 / 그룹 (4명 이내)
4. 접수 시작 : 11월 6일부터
5. 접수 방법 : 신청서 양식에 희망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http://ie.dongguk.edu> 외국어교육센터홈페이지에서 참조바랍니다.)
6. 문의 및 상담 : 2260- 3380 / 3472

국제교육원

2006 동국대학 전시회

오라!
보라!
즐기라!

엔조이 엔지니어

건축공학과 11.22(수) - 11.24(금) 안해관 1층 중정
기계공학과 11.20(월) - 11.22(수) 공용공작실 (원동관 1층)
토목환경공학과 11.6(월) - 11.7(화) 안해관 1층 중정
생명화학공학과 11.13(월) - 11.14(화) E217 (원동관 2층)
전자공학과 11.20(월) - 11.22(수) 전자실험실 (원동관 6층)

변화하는 제28대 동국대 학생회

100th Anniversary
DONGGUK UNIVERSITY

지혜와 자비로 사랑과 인성인 양재가
새로운 100년의 '두드림'을 시작합니다

내 후배 사랑 300억조성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

*1%의 정성이면 100% 이루어집니다.

월 3만원이면 큰 부담없이
모교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은 학교발전의 주역이자 미래의 희망인 우수한 후배들을 후원하여 세계 일류동국을 앞당기자는 모교사랑의 구체적 실천 방안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후배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부참여방법

- ▶ 월납, 분할납부 월3만원×100회(8년) = 3백만원
월5만원×60회(5년) = 3백만원
- ▶ 기타 금액, 일시납부등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 한번 더 내기에 참여하신 동문께서는.....

- ▶ 그 고귀한 뜻이 후학들과 모교에 영구히 기억되도록 건학100주년 기념조형물에 새겨 보존하겠습니다.
- ▶ 아울러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자보,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다

강화된 게시물 규정 ... 환경미화 vs 표현 자유 억압으로 의견 나뉘어

고대 그리스는 광장과 시장 역할을 겸하는 '아고라'를 통해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을 주장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의 장을 형성해 왔다. 고대 그리스와 같이 대학은 대자보가 '아고라'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측은 지난달 9일부터 '게시물에 대해 관리 규정'을 정해 게시판 관리 체제를 강화했다. 관리규정을 살펴보면 우리 학교 내에 부착하는 모든 인쇄물 및 현수막에 대해 각 게시판에 1매만 부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게시물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는 그동안 이루어져 왔으나 관리 규정이 따로 없어 학생들의 무분별한 게시물 부착이 문제가 되었는데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같은 종류의 게시물을 각 1매만 부착하고 규격을 정하는 것은 보다 깨끗한 학교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진우(경영2)군은 "학교 게시판이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바닥까지 지저분하게 붙어있는 것을 보면 학교 규정이 이런 부분을 해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확정된 게시물 관리 규정 중 '게시물의 내용은 교육목적, 사회일반통념 및 건학이념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부분에서 게시물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생각을 표출하는 공간을 막는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맑스철학연구회에서 활동하는 신봉근(사회4)군은 "게시판이 점차 줄어들어 학생들의 의사소통 공간이 줄고 있다"며 "게시물 관리 규정이 자칫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까지 막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자보'란 '우리나라의 대학가에 내붙이거나 걸어두는 큰 글씨로 쓴 글'을 말한다. 중국 인민이 자기의 견해를 주장하기 위하여 붙이는 대형의 게시물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과거의 대자보는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독재정권으로 억압돼 있던 학생들의 사회의식이 표출되는 의사를 대변해 주었다.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의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소식을 접하는 등 학생들의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공론장이 되

었다. 이러한 대자보의 기능이 요즘은 학생들이 개인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하고 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개인의 개성이 중요시되면서 학생들은 사회문제와는 자연스럽게 동떨어졌다. 대학생들의 관심사가 자신의 취업문제나 개인의 문제에 더 치우치면서 대자보는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빠른 정보습득이 가능해 대자보가 전해주던 소식은 한 발 느린 것이 돼버렸고 대자보를 통한 소통은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사회문제대신 학교 게시판에는 형형색색의 광고가 도배되어 있고,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붙인 대자보는 동아리 신입생 유치나 행사를 알리는 데 그치고 있다.

무분별한 대자보와 게시물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게시판에 마구잡이식으로 도배돼 학교의 미관을 해치고 이미 부착돼 있는 것을 떼고 자신들의 것을 붙이는 비도덕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행사 홍보물이 수거되지 않아 학생들의 반칙을 사고 있다.

"80년대에 대자보를 통해 사회와 대학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그 기능이 퇴색되었지만 아직도 대자보는 대학에서 볼 수 있는 게시 문화임은 틀림없다. 앞으로 대자보는 대학이 변화해감에 따라 또 어떻게 모습을 달리 할지 모른다. 하지만 변화 속에서도 학생의 목소리를 담은 진정한 '아고라'의 의미는 변치 않기를 바란다.

이승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게시물 관리 규정

제1조(목적) ... 각종 교내 게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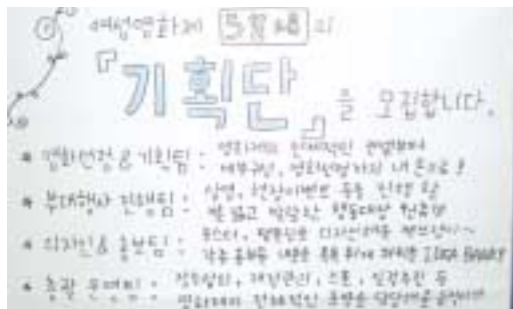
제3조(게시물의 부착) ... 동일 종류의 게시물을 각 게시판에 1매만 ...

제4조 교내(각 부서, 학과, 학생회 등) 게시물은 자율적 ... 외부의 게시물은 학생복지실의 허가 ...

제5조(게시물준수 사항) ... 게시 주체가 명시 ... 게시물의 내용은 교육목적, 사회일반통념 및 건학이념에 위배되지 않아야 ...

제6조(게시물의 제거) ... 내용, 제형, 규격 등이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임의로 제거 ...

(2006년 10월 9일부터 시행)



▲ 손으로 직접 쓴 대자보



▲ 도로에 무분별하게 붙은 홍보물



▲ 홍보물과 학교 게시물이 뒤섞인 게시판

대학내 성문화 기획 (2)

양성평등 문화란 무엇인가?

우리 대학에서도 다양한 성문화가 존재하며 거기에 따른 문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럴 때 대학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 나아가야 하는지 3회에 걸쳐 연재해 본다. 편집자

근래에 들어 양성평등문제는 정치적 제도적 법적 측면에서 상당히 그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양태는 법적 정치적 이슈를 통한 문제제기가 아닌 진보적인 여성단체 또는 운동가들을 중심으로만 성과를 보이고 있을 뿐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양성평등문화를 실현을 가져

다 주는 것은 아니다. 양성평등문화는 우리 사회 전체구성원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아야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에서의 양성평등문화의 실현은 양성평등이 사회에 실현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양성평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이란 남녀가 신체적인 차이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남녀의 성별이 아닌 인간으로서 모두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양성평등이 대학에서 실현되려면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할까? 그것은 각 대학 구성원들

의 인식 전환이 먼저 되어야 한다. 여성과 남성을 각각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여자라서 어렵다', '남자라서 안된다' 이런 생각들은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다. 물론 어느 정도 성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 지나친 편견을 가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편견을 통해 성역할을 고착화시키는 상황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건 남자가 해야 할 일이야', '여자는 이걸 해서는 안된다', '이건 남자가 잘 할 수 없어', '이런 건 여자가 해야 하는 것이야' 등등 편견을 통한 양성 평등적이지 못한 언행들이 우리 대학사회에서의 양성평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편견들로 인해 대학에서 여성의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고 여성이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된다면 여성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보장되어 대학에서 여성의 부분이 보다 현실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양성평등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주변에서 성차별적인 문화나 일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올바르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치관과 행동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그것을 위해 올바른 양성평등적인 가치관과 행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다. **진진상** 동국대학교 성고충상담원

메아리

직무 포기

▲ 20세기 초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저서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자신을 최대한 돌보이게 하려는 권력 추구가 대의에 대한 봉사보다 더 객관성을 잃고서 순전히 개인적인 자기도취의 대상이 되는 곳에서 좌악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지도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허영심을 꼽았다. "허영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정치인의 경우에는 치명적이다."

80여 년 전 먼 독일에서의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10년이 지난 100년이 지난 정치가가 허영심을 경계해야 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 지난 9일 실시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 예정돼 있던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돌연 불참을 선언해 논란이 벌어졌다.

하루 전인 8일, 급작스러운 김 의원의 불참보로 한나라당은 5명의 질문 기회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4명의 의원만 질의에 나섰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당초 한나라당은 이재오 최고위원을 첫 번째 순서로 결정했으나,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급히 김 의원으로 대신 결정됐다고 한다.

8일 김 의원에게는 전화로 "김학원 의원이 첫 번째로 질문하기를 원한다"며 "3수로 선수는 같지만 비교적 나이가 적으니 양보하라"는 당 관계자로부터의 통보가 있었다.

▲ "야당 질문자 중 첫 번째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포괄적으로 준비한 질문이기 때문에 중간에 하면 하나하나한 소리가 될 것 같다"는 김 의원의 말은 일리가 있고, 사전 논의 없이 순서를 정한 한나라당내 일처리로 매끄럽지 못했다. 하지만 무대는 한나라당 의원총회장이 아닌 국회 본회의장이었다.

'전직 당 대표에 대한 예우'를 김 의원 측에서 바랐다는 입장도 있다. 허영심으로밖에 볼 수 없다.

▲ 국회 대정부 질문은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직분이다. 대정부 질문은 국민을 대표해 정부를 상대로 질문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다. 베버에 따르면 훌륭한 정치가가 되려면 3개의 자질, 즉 정열과, 목적능력(目的能力) 그리고 책임감이 필수적이다.

자신의 직분에 대한 이해와 준수, 진자 책임감이 필요하다. 김영선 의원에게는 자신의 직분에 대한 이해가 잠시 결여돼 있던 것이 아닐까.

이주현 대학부장
nitate@dongguk.edu





“세상은 東行”

우리나라 동국대학교

세상의 중심이 동양으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큰 사상과 첨단 디지털과학이 만나 꽃 피우는 디지털문화의 중심, 우리나라 동국대학교에서 글로벌 리더의 꿈을 이루십시오.

www.dongguk.edu

대학원명	구분	원서접수기간	전형일	홈페이지주소	문의처	대학원명	구분	원서접수기간	전형일	홈페이지주소	문의처
일반대학원	주간	11/20(월)~11/28(화)-인터넷접수 11/27(월)~12/1(금)-방문접수	12/16(토)	http://gs.dongguk.edu	(02)2260-3116	언론정보대학원	야간	11/20(월)~11/30(목)	12/2(토)	http://gsci.dongguk.edu	(02)2260-3723
영상대학원	주간	10/30(월)~11/6(월)	11/10(금)~11(토)	http://dic.dongguk.ac.kr	(02)2260-3762~3	문화예술대학원	야간	11/13(월)~11/21(화)	11/25(토)	http://gsca.dongguk.edu	(02)2260-3607
불교대학원	야간	11/20(월)~12/1(금)	12/8(금)	http://gsbs.dongguk.edu	(02)2260-3098	국제정보대학원	야간	11/13(월)~11/23(목)	11/25(토)	http://gsiai.dongguk.edu	(02)2260-3733
행정대학원	야간	11/13(월)~11/24(금)	12/9(토)	http://gspsa.dongguk.edu	(02)2260-3102~3	불교문화대학원(경주)	야간	11/13(월)~11/23(목)	11/25(토)	http://www.k.dongguk.ac.kr	(054)770-2392~4
교육대학원	야간	11/20(월)~11/23(목)	12/2(토)	http://gsedu.dongguk.edu	(02)2260-3110~1	사회과학대학원(경주)	야간	11/13(월)~11/24(금)	11/25(토)	http://www.dongguk.ac.kr	(054)770-2093~4

